Entertainment p/18
봄 극장가, 공포영화 붐

metro

Sports p/21
손연재 개인종합 4위

부처님 vs 언론플레이

석탄일 앞두고 SK·CJ 등 '총수구하기' 물밑 작업 한창

사회적 기업 지원, 창조경제 협조 등 '선행' 홍보 열 올려

난장판 된 연극판

교과서로 도발하는 일본 교과서만 보고있는 한국

연극계 공황… 또 불거진 문화권력 논란

서울연극제 개막 전야에 문화예술위 '메인극장 폐쇄' 통보

서울연극제 개막 하루 전인 지난 3일 저녁 서울연극제집행위원회는 갑작스런 공문 하나에 공황 상태가 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을 오는 13일부터 한 달 넘짓 폐쇄한다고 알려왔기 때문이다.

서울연극제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극장을 대관해 공연을 가질 예정이었다. 문예위는 "구동부(조명모터)의 중대한 이상으로 긴급 점검과 보수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연극계 내에서는 "문예위가 윗분들 눈치를 보느라 절대 도와줄 수 없다'는 식의 괘씸죄성 또는 눈도장 받기 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공연계에서 가장 큰 행사인 서울연극제 기간에 메인극장을 수리하는 상식 밖의 일을 벌이겠느냐"는 지적이다.

아르코예술극장은 연극계의 터전이 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문예위는 사상 처음으로 대관 심사에서 서울연극제를 탈락시켜 연극계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당시 연극계는 정권에 비판적인 단체가 연극제를 주최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문예위가 대극장을 대관하여 일단 갈등이 봉합됐지만 이번 폐쇄 조치로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일 문화계 소식통에 따르면 이 같은 상황은 비단 연극계의 문제만이 아니다.

올해 들어 영화계는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종용 논란, 영화제 상영작 등급분류 면제추천 개정 논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사업과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 폐지 논란 등으로 바람 잘 날 없었다. 출판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의 세종도서 선정사업 이념기준 논란, 전태일청소년문학상 지원 중단 논란이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이념적 편가름이 문화계의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또한 문화분야 대기업과 정부의 밀월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중문화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CJ그룹의 경우 정부의 시책에 누구보다 적극적이다. 2014년 문화융성 정책 시작에 발맞춰 CJ E&M은 정부가 요청한 공연 할인에 나섰다. 다른 기업들은 비용 부담에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CJ가 배급사인 각종 공연과 영화를 잦았다. 올해 들어서는 CJ의 상암동 문화창조융합센터를 현거푸 찾기도 했다. 이를 두고 "CJ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사회비판적인 영화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극제 폐관극장인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폐쇄를 알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문

하지만 대중문화의 정치화 문제는 비단 현 정부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2008년 청와대가 작성한 이 문건에는 좌파로 분류된 단체를 공격하고 고사시키는 내용은 물론이고 유명 대중예술인을 감시하고 청산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는 반대로 진보성향 대중예술인들의 문화권력 장악이 비판대상이었다.

대중문화의 영향력은 문화를 정치영역 깊숙이 끌어들였다. 미국의 대중문화야말로 세계를 지배하는 제1의 도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하지만 문화계에서는 정치가 문화의 자율성을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그렇지 않다면 끊임없이 문화권력이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는 지적이다.

/송현숙기자 [illegible]

수류탄 폭발로 육군이병 중상

5일 오전 4시 6분쯤 인천시 소재 육군 모 부대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A(21) 이병이 수류탄 폭발로 중상을 입어 인근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A 이병은 이날 경계근무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초소를 벗어났다가 초소에서 10m 떨어진 울타리에서 수류탄이 폭발해 부상을 입었다.

의료진은 A 이병 몸에 박힌 수류탄 파편 때문에 왼쪽 발목을 절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군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

왕건함에 사상 첫 '함상 대사관'

합동참모본부는 우리국민의 예멘 철수 지원과 예멘 현지에 잔류를 원하는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3일(현지시간) 청해부대 왕건함(4400t급)에 대한민국 대사관 임시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배 위에 한국 공관이 설치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지난 3일(현지시각) 왕건함이 주 예멘 대한민국 대사관 직원을 탑승시키기 위해 지부티항에 정박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한국형 구축함 왕건함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중이었다. 왕건함에 개설된 주 예멘 대한민국 대사관 임시 사무소는 예멘에 잔류한 우리 국민과의 연락 유지와 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합참은 청해부대가 정상적으로 우리 선박 호송과 해양안보작전 임무를 수행하면서 임시 사무소에 대한 공간과 통신시설 제공 등 지원 임무도 수행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예멘 상황 악화에 따라 수도 사나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15명과 대사관 직원 4명이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유엔이 제공한 항공기를 이용해 합참의 지원 하에 두 차례에 걸쳐 에티오피아와 지부티로 안전하게 철수한 바 있다.

정부는 예멘에 잔류하는 우리 국민이 4개 지역으로 분산돼 있어 왕건함 내에 임시 사무소 설치가 재외국민 보호에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윤아기자 yoona@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도전' 기자회견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실종자 수색·선체 인양·진상규명을 위한 416개 촛불로 만든 세월호 기네스북 등재 추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종주주의국민행동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오는 17일 서울광장에서 4160명의 시민들이 촛불로 세월호 형상을 만들어 기네스북 등재를 추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일본 '독도 도발' 임박… 한일관계 전운

6일 '독도 불법점거 주장'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7일 '국제법상 일본 영토 적시' 외교청서 발간

일본이 6일과 7일 역사교과서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6월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가뜩이나 경색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이후 처음 검정하는 만큼 이에 맞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가 반길 내용은 아니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도 관련 기술 면에서 이전보다 더욱 도발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이다.

일본은 다수의 역사 교과서에 독도에 관해 기술하면서 '한국이 불법점거중' 이란 내용을 비롯해 강도 높은 표현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다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간다. 지난해 1월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해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강제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어 7일에는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해 왔으며 올해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최근 일본 언론은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본이 교과서 검정 결과 및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면 이를 독도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외교부 대변인 이름의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중일 3국은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대화를 재개했지만 일본의 독도 도발로 분위기가 냉랭해질 조짐이 엿보인다. 유흥수 주일대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한일관계가 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찬물을 끼얹는 일들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 것인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국제적 논란시비가 있는 영토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을 교과서에 기술한 것은 우리에 대한 '영토 도발'을 하는 것은 물론 양국 관계 회복의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윤아기자 yoona@

문재인·권노갑 회동 불발

동교동계 '온전한 지원' 여부 불투명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권노갑 상임고문 간 5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회동이 불발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연기'라는 표현을 썼지만 동교동계가 온전히 문 대표의 구원요청에 응할 지는 미지수다. 4·29재보선 선거판을 뒤흔든 정동영 발 충격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당 대표실에서 권 고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고문 및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 자리는 문 대표가 동교동계 좌장인 권 고문에게 4·29 재보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고문은 지난 3일 동교동계의 선거지원 반대 움직임을 무릅쓰고 문 대표의 지원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회동에 참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동교동계의 반발로 회동이 무산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논란이 일자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내부 논의 과정에서 다른 상임고문들과 최고위원들로 참석범위를 넓혀 재·보선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확대되면서 일정을 재조율해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한 것"이라며 "당초 오는 오기로 한 상임고문들의 뜻에는 변함이 없고 단순한 일정 재조정인 만큼 억측을 말아달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새로운 일정은 밝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일찍 권 고문은 임채정 김원기 상임고문에게 전화를 걸어 "전체 상임고문단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레 잡다보니 성원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며 "이대로는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다시 일정을 잡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고문 측은 "권 고문은 변함없이 재보선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뒤는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동교동계 전체가 권 고문의 뜻을 따를 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관악을 당 경선에서 탈락한 김희철 전 의원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권 고문이 정동영 전 의원의 관악을 출마를 비판한 얘기를 듣고) 우리 동교동계 45명 정도가 모여 이번에 '일절 새정치연합을 돕지않는다. 즉 친노(친노무현)를 돕지않는다'고 결의를 했다"며 "권 고문도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앞에서 이렇게 맹세를 했기때문에 '나도 당원 여러분들의 뜻에 따르겠다' (고 말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했다.

동교동계 중 현역의원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 역시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박 의원이 문 대표가 모양새를 갖춰 요청하는 조건으로 동교동계를 설득하겠다고 한 발언과 관련해 "아마 박 의원께서도 이러한 동교동계 전체의사를 급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술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인사하는 문재인과 정동영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왼쪽 두 번째 와 4·29재보선 관악을에 출마한 국민모임의 정동영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5일 서울 관악구 서원동 성당에서 서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새정치연합 정태호 관악을 후보, 오른쪽은 정 후보 부인인 민혜경 여사.

/연합뉴스

무궁화 식수한 뒤 물 뿌리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식목일인 5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박흥렬 경호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무궁화를 식수한 뒤 물을 뿌리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연합 오늘부터 '정책엑스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책엑스포'를 통해 대안정당으로서의 위치 구축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부터 8일까지 3일에 거쳐 국회 의원회관과 본청 앞마당에 '2015 다함께 정책엑스포'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엑스포 행사에는 당내 대권주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당대표를 필두로 최문순 강원도지사, 안철수 전 공동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한 자리에 모인다. 새누리당 주요 의원들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져 이번 행사가 사실상 비공식적인 '양당 회동'이 될 전망이다.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이 정책엑스포를 통해 새정치연합은 정당의 정책과 방향을 소개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이 시민을 만나다! 희망을 말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유다.

첫날인 6일 오전 130명 의원 전원이 공식 티셔츠를 입고 오여 국회도서관 앞에서 개막식을 연다.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당 외부 인사들도 참석한다. 둘째 날에는 안 전 공동대표가 나서서 혁신경제와 신산업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박 시장도 복지성장론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특히 이날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이 참여하는 '보수진보 대토론회'도 개최된다. 마지막 날에는 안 지사가 나와 '낡은복지를 넘어 시대과제로서 복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연다.

/김서이기자 [illegible]

4월국회 7일 개회… 세월호에 재보선 '첩첩산중'

4월 임시국회가 오는 7일 개회해 다음달 6일까지 계속된다. 4월국회 전망은 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오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오는 29일 재보선 선거일이다. 공무원연금개혁, 각종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등 심각한 정치·경제·노동계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세월호 인양 문제와 재보선으로 인해 제대로 논의나 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여야는 당장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놓고 강도 높은 대립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이 조사특위의 대상과 기구 규모 등을 대폭 축소됐다며 야당과 유족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대해 수정할 수 있다며 전면 철회에 반대하고 있다. 또 선체 인양 찬반 논쟁도 서서히 국회로 옮겨붙고 있는 상황이다.

재보선이야말로 여야 간 초미의 관심사다. 정동영 전 의원의 관악을 출마로 야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여당은 야당 텃밭 공략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재보선에 밀려 각종 현안이 묻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안 중에서는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뇌관이 있다. 오는 7일 예정된 박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제기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인 범위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무산위기에 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4월국회 초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국조특위의 기간을 연장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국조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맞서 타협이 힘든 상황이다.

4월국회 초반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할 예정이어서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가 다시 이슈화될 가능성도 있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해 의원들의 물밑 논의가 활발할 전망이다.

/장윤아기자 yoona1@

목포·통영 해역에 중대형함정 배치

해양사고 발생이 잦은 해역에 기존의 소형 경비정(50t급) 대신 중·대형함정이 배치된다.

국민안전처 해경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5일 사고가 잦은 해역을 특별경비수역(가칭)으로 지정하고 500~250t급 중형 함정과 5000~1000t급 대형 함정을 배치하기로 했다. 연안해역 중 여객선·유도선 대형 유조선 등 선박 통항이 많아 충돌·좌초 등 해상사고가 발생 할 경우 대형재난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별경비수역으로 지정된 곳은 목포와 통영이다. 목포특별경비수역은 목포 가사도 인근해역이 지정됐다. 이 해역은 조류가 강하고 여객선 통항이 많으며 예인선·어선·상선이 다수 통항하는 곳이다. 통영 특별경비수역은 통영 대변대도~한산도 인근해역이 지정됐다. 조선소가 많고 예인선과 어선, 유·도선 등의 통항이 많은 곳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경비 개념을 바꿔 구조 역량이 뛰어난 500~1500t급 경비함정 5척(목포 2척 2교대, 통영 3척 3교대)을 특별경비구역에 배치해 24시간 사고예방 활동을 펼 예정이다.

해경본부관계자는 "이번 특별경비구역 지정과 중·대형함정 전담 배치로 연안 사고다발 해역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활동이 가능케 됐다"며 "상황발생 시 해상의 골든타임 1시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 구조 활동을 벌여 연안 해역 사고 대응역량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플아기자

콜택시도 모바일앱으로

쉽게 불러 안전하게 타고 가는 택시. 택시 이용자들의 이 같은 요구에 딱 맞는 택시 앱 서비스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대기업이 만든 '카카오택시'부터 벤처기업이 내놓은 '백기사'까지 다양한 앱들이 5월 현재 소비자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출시된 앱들은 택시 호출이 쉽다는 게 장점이다. 앱을 실행시킨 후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를 호출 할 수 있다. 탑승 이후 목적지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알 수 있다. 기존 콜택시 서비스와 달리 시외구간 이동 시에도 큰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하다.

택시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안전장치는 앱들의 또 다른 장점이다. 승객들은 탑승한 택시에 대한 정보를 가족·친구·연인에게 보낼 수 있다. 미리 택시기사의 서비스 평점이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앱도 있다.

앱마다 특화된 서비스도 있다. 백기사의 경우 임산부·아이 동반·짐 동반·조용한 택시 등 이용자 개인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미리 전송할 수 있다. 카카오택시의 경우는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Call Taxi Available Through Mobile Application

Easy and Safe to use! There are new applications being launched to meet the demands of taxi users. From "Kakao Taxi" made by a major company to "Baek Kisa" by a venture company are waiting to be publicized on the 5th of this month. The advantage of these applications is that it is easy to call the taxies. All you have to do is run the application and type in your destination point. Then the nearest taxi comes right where you are. Also you can find out how long it takes to your destination point. Unlike other taxies and buses, it has been made easier to go out of town. Another advantage is that there are applications that can ensure the safety of the taxi users. The customers can send the information of the taxi and the driver. Plus you can check the comments of that taxi written by other customers. There are applications specialized for specific users. Baek Kisa for example allows the customers to request certain things before using the taxi. Pregnant women, parents with children, people with luggage and for people who just want quietness can send their request to the taxi they will be using. Kakao taxi provides the information on the direction to the driver and the customer.

/파고다어학원 번역출판 Chris Kim(파고다 강사)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 시범운영

소액 영세 납세자를 위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가 시범운영된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5일 세무 관련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 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심판청구(법인·상속·증여·종합부동산·지방·관세 제외)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000만원 미만인 소액 영세 납세자에게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무보수 지식기부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세심판원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조세 전문가 중 7명을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선정해 지난 2일 위촉식을 열었다.

김형돈 조세심판원장은 위촉장 수여 이후 국선심판청구대리인과의 간담회에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해 소액 영세 납세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심판원은 첫 시행되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에 맞는 청구인에게 먼저 제도를 안내하는 등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송병형기자 bhsong@

'핵협상 타결' 이란 경기장 여성출입 허용 자국 여성의 스포츠 경기장 출입을 금지해 온 이란 정부가 4일(현지시간) 남자 경기에 여성 관중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직후 남성팬들의 외설적 욕 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한다며 여성들의 경기장 출입을 금지했다. 사진은 2014년 6월 2일 테헤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출정 환송식에 참석해 국기를 흔들고 있는 이란 여성의 모습. /연합뉴스

정부 '과장리더십 스쿨' 신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공직사회의 중간관리자인 중앙 부처 과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과장리더십스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과장리더십스쿨은 각 부처의 과장 역량 평가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기관별 수요에 따라 기수별 100여명씩 연간 1000여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국정철학 이해, 융합사고 증진, 리더십 역량 심화, 변화관리 리더십, 혁신마인드 함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주제별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정책 토크 콘서트' 시간도 마련했다. /송병형기자

촛불 든 교황 4일(현지시간) 저녁 바티칸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철야기도를 앞두고 긴 초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관록의 진보' 대 '신세대 보수'

힐러리·랜드 폴 대선 출마선언 임박

랜드 폴 공화당 상원의원(왼쪽)와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 /연합뉴스

2016년 미국 대선을 위한 여야 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야당인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이 곧 대선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여야의 유력주자여서 미국 대선 초반 레이스는 '관록의 진보' 클린턴 전 장관 대 '신세대 보수' 폴 상원의원의 양자 대결이 될 전망이다.

5일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폴 의원은 오는 7일 대권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출마 의지를 밝힌 같은 당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공화당에서는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을 비롯한 다른 잠룡들도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랜드 폴 상원의원은 지난 2월 보수층을 대상으로 한 2016년 공화당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했다. 폴 상원의원은 올해 52세로 비교적 젊은 데다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뚜렷해 젊은 보수층에게 어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유력 대선주자인 클린턴 전 장관의 출마선언이 임박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최근 뉴욕 브루클린에 사무소를 추가로 임대해 본격적인 출마 준비에 나섰다. 민주당에서는 선거자금 모금활동을 시작한 전 부시 전 롱로리다 주지사를 포함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역시 곧 대권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 언론은 클린턴 전 장관의 대권 출마 선언을 대권 레이스 개시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현재 출마선언 메시지와 출마선언 이후의 구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에서는 클린턴 전 장관의 공식 출마선언에 맞춰 '힐러리 때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김서이기자

자동차보험 'UBI'로 적자늪 벗어날까

<운전습관 연계보험>

운전성향 분석해 보험료 책정 — 리스크 감소 기대
선진국서 빠르게 안착, 국내서도 본격 개발 착수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은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 이에따라 보험업계는 운전습관 연계보험(UBI)이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주목하고 있다.

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8.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상승한 것으로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다.

자보의 적정 손해율은 77~78%다. 결국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록 적자가 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최근 가입자의 운전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운전습관 연계보험(UBI)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UBI 자보는 차량에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차량정보 수집 장치를 부착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상품이다. 운전자의 운행패턴과 사고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기존 자동차 보험료 산정방식이 연령이나 사고경력, 배기량 등을 고려했다면, UBI는 가속·제동·속도·운전시간 등 차량 운행정보를 보험료 요율에 반영한다.

이 때문에 가입자는 운전습관 변화를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만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UBI 자보는 이미 유럽과 미국 등 보험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010년 영국 자동차보험시장에 뛰어든 인슈어더박스는 UBI를 활용한 자보를 출시했다. 이 보험이 현지에서 성공하면서 영국은 지난 2009년 1만2000건에 불과했던 UBI 가입건수가 2012년 상반기에만 18만건으로 급증했다. 영국은 오는 2020년까지 UBI보험이 전체 자보 시장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프로그레시브 보험사가 지난 2011년 UBI자보를 출시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현재 유럽과 미국의 자보 중 UBI 상품의 점유율은 8.4%로 매년 200%가량 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당국과 업계에서 UBI 자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열고 KT, 보험개발원 등과 함께 시범차량 운행 데이터를 분석한 뒤 올해 말부터 UBI 상품을 본격 개발하기로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 1월 KT와 UBI와 관련 보험상품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올해 들어 자보 손해율이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UBI보험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면서도 "개인정보를 활용한 상품이다보니 당국에서 얼마나 이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입 초기 막대한 비용의 지원과 수요자 조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미사강변리버뷰자이 견본주택 방문객들이 안내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단지모형을 둘러보고 있다. /GS건설 제공

분양시장 훈풍? 청약결과는 '극과 극'

교통·개발호재 등 입지 따라 희비 엇갈려

4월 역대 최다 분양물량이 쏟아지는 등 분양시장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단지별 청약성적은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청약자 수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도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보다 실패한 단지가 더 많았다.

5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틀 동안 전국적으로 10개 단지의 청약이 실시돼 3개 단지가 1순위 마감됐다.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지구 A1블록 미사강변리버뷰자이는 지구 내 민간아파트 중 가장 높은 평균 23.8대 1로 전 주택형 마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서울 광진구 자양동 '래미안프리미어팰리스'가 11.79대 1, 제주 강정지구 4블록 '유승한내들' 이 10.60대 1로 뒤를 이었다.

그나마 경기도 용인시 기흥역세권 2블록에 공급된 '힐스테이트 기흥'은 평균 3.92대 1의 청약률을 보이며 7개 주택형 중 6개가 1순위서 마감됐다. 나머지 1개 주택형도 2순위에서 모집가구수를 모두 채웠다.

또 김포시 한강신도시 Ab-17블록 '반도유보라3차'와 화성시 한념동 '우방아이유쉘', 의정부시 민락2지구 B14-15블록 '호반베르디움', 충남 세산시 서산테크노밸리 A4블록 '힐스테이트 서산' 등도 1순위에서의 저조한 성적을 2순위에서 만회했다.

반면 제주 삼화지구 1-4블록의 '사랑으로 부영7차'는 360가구 공급분에 105명밖에 청약하지 않아 대거 미달 사태를 빚었다. 경기도 용인시 역북동 '용인역북 골드클래스' 역시 619가구 모집에 558명이 접수하는데 그쳤고, 서울 은평뉴타운 '힐데스하임'도 미달 세대가 나왔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은 "3월 청약제도 개편과 함께 1순위 가입자가 크게 늘면서 전체적으로 청약성적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른 바 '되는 곳'으로만 청약자가 몰린다"며 "교통·개발호재 등에 따라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하남미사지구만 보더라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선 호재를 등에 업고 수천만원의 웃돈이 형성된 상태다. LH에서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의 프리미엄은 최고 1억원에 달한다.

용인의 기흥역세권지구도 마찬가지. 지난달 공급된 '기흥역 지웰 푸르지오'는 벌써 2000만원가량의 웃돈이 붙어 있다. 지구 내 분당선 연장선과 용인경전철 환승역인 기흥역을 끼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장재현 팀장은 "이전과 같은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면서 같은 지역 안에서도 역세권 단지인지, 분양가는 적정한지 등을 깐깐하게 따져 청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묻지마 청약이 사라지면서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욱기자 pmj@

서세원·서정희 딸 소유 고가 오피스텔 경매

방송인 서세원·서정희씨의 딸 서동주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에 나왔다.

5일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동주씨가 소유하고 있는 청담동 피엔폴루스 10층 1003호가 지난 2월 27일 외환은행에 의해 경매 신청돼 현재 경매절차를 밟고 있다.

피엔폴루스 오피스텔은 지난해 서세원씨가 서정희씨를 폭행하는 CCTV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던 건물이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당 499만1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에 4년 연속 이름을 올린바 있다.

해당 물건(사건번호중앙 21계 2015-4031)은 23층 건물 중 10층에 있으며, 전용면적은 138.56㎡다.

지난 2011년 3월 17억7000만원에 서동주씨가 매입했으며 은행권 근저당권 5억8000여만원과 전세권 9억원, 가압류 3억원, 구정 압류 등이 설정돼 있다. 감정가는 21억4000만원으로 평가됐으며 올해 7~8월께 첫 입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동일 면적에 21층이 지난해 12월 21억5000만원, 11층이 8월 19억8000만원에 매매됐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은행 대출 이자가 수개월간 연체돼 경매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권리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고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한 만큼 명도의 난이도도 높지 않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백상욱기자

2월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7.7%

2월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전월과 같은 7.7%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5일 2015년 2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7.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9.2%로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주택 8.2%, 아파트 6.0% 순이다.

지역별로는 지방(8.7%)이 수도권(7.2%)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부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낮은 6.8%, 경북이 가장 높은 11.0%를 기록했다. 강원은 9.4%에서 9.1%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하며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부산은 7.8%에서 8.0%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김유진기자 yasfan@

로또복권 제641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5	15	17	23	25	35	8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931,451,204
2등	5개숫자+2등 보너스숫자	46,835,407
3등	5개 숫자 일치	1,212,513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회장 겸 발행인 남궁호
사장 겸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김세준
광고문의 02)721-9851 5
독자센터 02)721-9861

2015년 4월 6일 월요일 서울특별시 가00188

안심전환대출 마무리 2차 신청자 모두 대출 가능

한도 20조원 미달… 금융위 "추가공급 없다"

제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한도 20조원에 미달함에 따라 신청자 전원이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됐다. 다만 고정금리대출자를 위한 신상품이나 제3차 안심전환대출 출시는 없을 전망이다.

5일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집계한 결과 지금까지 33조9000억원과 34만5000명의 접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차분을 마지막으로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종료하고 더 이상 운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공급은 모두 15만6000명 14조1000억원에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약 6조원의 한도가 남았지만 추가 대출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 "가계부채 물량 감축 효과 있어"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를 적용받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대출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이는 주택가격 9억원,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에 대해 연 2.53~2.68%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 수준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 출시 첫날부터 월 한도액이 사실상 동났다.

이에 당국은 당초 월간 안심전환대출 전환 한도를 5조원, 연간한도로 20조원을 설정했지만 사전 수요가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추가 20조원을 더 공급했다.

이와 함께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20조원 한도로 받되, 신청액이 20조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분은 선착순 선수였던 1차분과 달리 일정기간 일괄 접수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영업점 대부분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고객 불편도 감소했다"며 "한도 초과시에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평균 대출규모 역시 1차분의 1억5000만원에 비해 9000만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서울 한 시중은행 안심전환대출 신청 창구에서 고객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또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이 약 7~8%p 상승할 것으로 추정돼 2016년도 구조개선 목표(30%)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의 특성으로 매년 약 1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총량 감축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 부채에 대한 구조는 개선됐다는 평가다.

◆ MBS 발행 물량 부담… 국민-우리-신한은행 순

하지만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 재정여력 등을 감안해 3차 안심대출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했다.

실제 1~2차 합쳐 34조원에 달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이 이를 발행하는 주택금융공사와 매입해야 할 시중은행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일시에 대규모로 공급됨에 따라 향후 MBS 발행 부담과 은행권 MBS 보유 리스크 발생 가능성 등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금융당국과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MBS 관련 TF를 구성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통해 관련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별 취급비중(1차 신청분 기준)은 국민은행이 25.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13.8%), 신한은행(13.1%), 농협은행(12.8%), 하나은행(10.2%) 순이다.

또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된 대출 중 59%가 기존에 변동금리이면서 이자만 내는 대출자로 나왔다. 차주들의 평균소득은 4100만원이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의 71%를 차지했다.

/박제성기자 alive0153@metroseoul.co.kr

외환은행 스킨십경영 강화 최근 김한조 외환은행장(오른쪽 두번째)이 '현장 중심 경영'을 통한 고객 기반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경남 창원지역 거래기업인 한월단조공업을 직접 방문, 회사 관계자로부터 생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롯데건설, '동반성장' 본격 가동

롯데건설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활동을 확대한다.

롯데건설은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동반성장 추진사무국'을 본격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2013년 받았던 동반성장지수 '양호' 등급을 '우수' 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롯데건설은 이를 위해 ▲자금지원 ▲교육지원 ▲기술·의견지원 ▲교류 확대 ▲공정문화 확립 등 5대 실천과제를 선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무이자대여금제도를 통해 최대 50억까지 자금지원을 하고, 400억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대금 지급 기일을 단축해 진행하고 하도급 대금의 현금 결제 비율도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협력사의 교육 인력 지원과 기술 역량 지원을 위해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경영자들에게 해외연수와 경영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도입해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협력사와 성과공유 차원에서 신기술 신공법을 적용해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공사비를 절감한 경우에는 현금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과 임직원의 동반성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선사적 캠페인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담 위주의 딱딱한 형식을 탈피해 15~60일의 공식(대금지급), 상생알터(동반자 문화) 등 부드럽고 재미있는 만화로 게시물을 만들었다. 임직원들은 제작된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의식개혁과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동반성장캠페인상생알터 만화 게시물

또 정기적으로 협력사와 함께 하는 교류행사도 늘릴 예정이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과 우수협력사 대표 등이 함께 등산을 하고 공사 현장과 협력사 본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져 격의 없이 소통을 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동반성장 추진사무국 박대환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협력사와 지속 성장이 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옥기자

NH투자증권, 中 대표기업 방문

'제2의 국내 증시' 탐방

NH투자증권은 중국 기업들을 방문해 후강퉁 이후 중국 증시 열기를 직접 느끼고 올해 하반기 시행될 선강퉁 분위기를 파악하는 기회를 갖는다.

NH투자증권은 "황종욱 WM(지점영업)사업부 대표 등 WM사업부 임직원으로 구성된 중국 기업 탐방단이 오는 6일 중국의 대표 기업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중국 기업 탐방단은 3박 4일 동안 북경과 상해 지역의 공상은행, 중국석유화학, 왕왕식품, 상하이자동차, 상해복성의약 등 중국의 대표 기업 10여곳을 방문한다. 이들 기업의 실적과 업계 전망, 고객 일정에서의 공급증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일정에는 현지 경제 전문가들 초빙하는 강연회가 포함됐다.

탐방단은 강연회에서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과 이슈사항인 국유기업 개혁, 환경보호, 핀테크, 부동산 정책 등을 확인하게 된다.

NH투자증권은 이 같은 임직원들의 중국 현지 파견을 올해 최소 5차례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김원규 NH투자증권 대표는 "중국은 향후 높은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로 AIIB 설립을 주도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와 가깝고 문화적 이질감이 적은 중국 시장에서의 사업 강화는 금융업에도 필수적이어서 중국 증시는 해외 시장이 아닌 '제2의 국내 증시'로 보는 것이 맞다"고 탐방단 파견 배경을 설명했다.

/김보배기자 [illegible]

저금리시대, 해외펀드가 '대세'

자금 순유입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해외 주식형펀드'에 돈이 몰리고 있다.

해외펀드 수는 전년대비 24% 급증했고 자금 순유입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며 금리 1% 시대의 확실한 수혜자로 떠올랐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주식형펀드에는 6296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인 지난 2008년 4월의 7512억원 순유입 이후 거의 7년 만에 월 단위로 최대 순유입 규모다. 이로써 올해 들어 해외 주식형펀드 자금 유출입도 3234억원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5년 7개월간 매월 순유출 행진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 2월 224억원의 소폭 순유입으로 전환한 데 이어 3월 들어 자금 유입 속도를 높였다.

일간 단위로도 지난달 6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8일 연속 순유입을 지속해 지난 2008년 4월 이후 최장기간 순유입 기록을 써나가고 있다.

해외 주식형펀드는 지난 2006~2007년 브릭스(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붐을 일으켰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큰 손실을 내면서 인기가 시들어 버렸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세계 주요국의 양적완화 기조 하에 미국·유럽·일본 등 증시가 뛰어오르고, 국내 기준금리도 1%대로 떨어지자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형펀드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특히 중국 증시가 작년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도입을 계기로 한 단계 뛰어오른 뒤 올해도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교차거래) 실시 기대감을 키우면서 '제2의 중국 펀드 붐'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연초부터 지난 1일 현재까지 중국 본토 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3.57%에 이른다. 같은 기간 유럽 펀드도 16.36%, 일본 펀드도 11.44%의 수익률로 좋은 투자처에 목마른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다.

펀드 전문가들은 "자산운용사들도 앞다퉈 해외 주식 투자펀드를 연일 출시하면서 투자자를 모으려 총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해외 주식형 펀드의 부활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해외투자에 대한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성장성이 높다 하더라도 시장 특성상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섣부른 기대와 분위기에 휩쓸리는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1년 이상 미사용계좌 현금인출한도 축소

오늘부터 하루 600만 → 70만원으로

앞으로 1년 이상 안 쓴 계좌에 대한 현금자동입출기(ATM) 인출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피해를 예방하고자 1년 이상 미사용 중인 계좌에 대해 현금인출 한도를 6일부터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장시간 쓰지 않거나 잔액이 적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둔갑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주로 활용하는 대포통장은 암시장에서 개당 1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또 지난해 발생한 대포통장 피싱사기는 4만5000건으로 전년 대비 16.3% 늘었다.

금감원은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후 5월 중 전 은행권으로 확대적용 할 계획이다. 추후에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도 대상 기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선의의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신분증을 들고 금융사 창구를 찾아가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하면 인출한도를 다시 늘려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자동화기기의 현금인출 한도 조정 조치로 대포통장 발생률 25% 내외 수준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배기자

김주하 농협은행장, 中企 성장 듣는다 김주하 농협은행장(앞줄 가운데)이 중소기업 CEO [illegible] 간담회를 가진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농협은행 제공

BC카드-UPI "中 요우커 잡는다"

'퀵패스' 결제서비스 확대

BC카드는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널(이하 'UPI')과 손잡고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퀵패스(QuickPass)' 결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NFC를 통한 비접촉식 결제방식으로 IC칩이 내장된 플라스틱 카드 또는 스마트폰을 모바일 결제 단말기에 가까이 대면 결제가 되는 형태다.

현재 중국 내에서 발급된 10억장의 유니온페이 IC칩 카드 중 70%(약 7억장) 가량이 '퀵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중국 관광객을 포함해 해외에서 유니온페이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들은 동대문 두타 450여개 가맹점에서 '퀵패스'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말 서비스가 개시된 GS25 전 가맹점(약 8100개)은 포함할 경우 전국 8500여개의 가맹점에서 퀵패스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BC카드는 두타와의 제휴를 기념해 오는 7월 31일까지 두타 전매장에서 유니온페이 '퀵패스'로 결제하는 모든 고객에게 30% 할인(1일 한도 최대 2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선보미 한국 UPI대표는 "유니온페이는 한국 내 파트너인 BC카드와 함께 '퀵패스'를 적극 보급해 유니온페이 카드 해외 결제 서비스 혁신성을 강화하고, 모바일 카드 편의성이 제고된 효과적인 결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

SC·씨티은행, 휴면예금 환급률 1%대

지난해 말 1760억원 주인 못 찾아

장기 미거래 계좌에 대한 외국계 시중은행의 고객 돈 환급률이 1%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휴면예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은행 휴면예금은 총 2671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11억6900만원이 고객에게 환급(작년 12월 기준)돼 환급률은 34.12%에 그쳤다.

나머지 1194억1900만원(44.7%)은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 출연됐으며 565억8300만원(21.18%)은 은행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작년까지 1760억6600만원에 달하는 휴면 예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특히 씨티와 SC은행 등 외국계 시중은행의 휴면예금 환급률이 평균을 크게 하회했다. SC은행의 환급률은 1.53%, 씨티은행의 환급률은 3.2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고객 돈을 찾아주려는 노력보다는 보다는 휴면계좌를 처분하기 위해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곧바로 출연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며 "휴면예금은 수익이 거의 나지 않으면서 관리비용은 투입되기 때문에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은행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SC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93.69%, 씨티은행의 재단출연 비율은 81.16%로 은행권의 평균 재단출연비율인 44.7%을 크게 상회한다.

은행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입금거래와 출금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 계좌로 구분해 거래가 중지된다. 이후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신 의원은 다만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시중은행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휴면예금을 바로 재단에 출연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은행이 더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

출시 임박 갤럭시S6엣지 북미 안착 위기

아이폰6+보다 압력에 약해…'벤드게이트' 논란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회복에 나섰지만 난관에 봉착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에서는 샤오미의 물량 공세에 밀리고 있으며, 북미에서는 조롱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애플의 텃밭인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아이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마케팅을 펼쳤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는 11일 북미 시장에 차세대 전략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를 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엣지가 애플의 아이폰6 플러스 보다 압력에 약하다는 실험 결과가 등장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6 플러스의 벤드게이트 문제를 걸고 넘어졌지만 이번엔 갤럭시 S6 엣지도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삼성전자는 모바일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노트 엣지 사진과 함께 "Curved. Not bent"라는 글이 올렸다. 이는 갤럭시노트 엣지가 구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휘어진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는 내용으로 아이폰6 플러스의 휨 현상을 비꼰 것이다.

여기에 지난 3월 MWC에서 언팩 행사에서 이영희 부사장은 "우리는 절대 구부러지지 않는다"며 아이폰6 플러스의 휘어짐 현상을 또다시 공격했지만 이날 발언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스스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운꼴이 됐다. 미국의 스마트폰 보험회사인 '스퀘어 트레이드'는 지난 3일 자사 유튜브 계정에 갤럭시S6 엣지와 아이폰6 플러스, HTC의 원M9 등 3가지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내구성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미국 스마트폰 보험사인 스퀘어트레이드가 지난 3일 공개한 갤럭시S6엣지 압력 테스트 실험 장면.

그 결과 갤럭시S6 엣지와 아이폰6 플러스의 한계 압력은 110파운드(약 50kg) 정도로 거의 같았는데 아이폰6 플러스가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 그쳤지만 갤럭시S6 엣지는 디스플레이에 균열이 생겼다.

또 스마트폰을 안전히 사용할 수 없는 '치명적인 상태'까지 압력을 가하는 실험에서는 아이폰6 플러스는 179파운드(약 81.2kg), 갤럭시S6 엣지는 149파운드(약 67.6kg)까지 버티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퀘어 트레이드는 "과도한 압력을 가하면 디스플레이가 손상된다는 점에서 갤럭시S6 엣지가 아이폰6 플러스보다 내구성이 낮다"고 결론냈다.

또 CNN의 경제전문 채널인 CNN머니도 스퀘어트레이드의 실험결과를 인용해 삼성도 지난해 9월 애플이 곤욕을 치른 벤드게이트 같은 상황에 휘말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 제목에는 아예 '벤드게이트2'라는 표현을 썼었다.

다행히 갤럭시S6 엣지의 벤드게이트 보도가 미국의 부활절 시기에 공개돼 화드게 확산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갤럭시S6 엣지 벤드게이트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갤럭시S6 엣지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 미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애플의 경우 50%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삼성은 26%로 추락하며 고전을 면치못하고 있다. /유승은기자 yse@metroseoul.co.kr

동부그룹 구조조정 동부하이텍만 남겨둬

동부그룹 비금융부문 구조조정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업체인 동부하이텍 매각이 계열사 정리작업의 사실상 마지막 절차가 될 예정이다. 동부메탈이 최근 채권자 동의를 얻어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에 돌입하고 동부팜한농은 계열 분리 후 매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연말 아이에이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이후 잠잠했던 동부하이텍 매각 작업은 올해 상반기 중 프라이빗 딜 형태로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부그룹은 2013년 11월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고자 2조7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산업은행이 6개월 넘게 동부제철 인천공장과 동부발전당진 지분을 묶은 패키지딜을 추진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자율협약 체제로 들어갔다. 동부제철과 패키지로 묶어 있던 동부발전당진은 2010억원에 SK가스에 팔렸다. 동부건설은 지난 연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동부특수강은 2940억원에 현대제철로 넘어갔다.

동부그룹 제조부문 지주회사 격인 동부CNI는 금융IT 부문 자회사인 FIS시스템을 900억 원에 비케이에이인지 PE에 팔았고 전자재료사업부는 램느로스에 546억원에 넘겼다. 동부익스프레스 지분은 KTB PE에 3100억원에 팔렸다.

1년여 동안 진행된 동부그룹의 계열사·자산 매각 규모는 1조원을 상회한다.

동부메탈은 채권단의 조건부 워크아웃 결의 이후 지난주 사채권자 집회에서 사채권자 대다수가 100% 찬성해 워크아웃 안건이 가결됐다. 김 회장과 그의 아들인 김남호 동부팜한농 부장이 동부메탈의 회생을 위해 200억원의 사재 출연을 하기로 했다.

동부하이텍은 현재 동부그룹 8개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양성운기자

'29g' LG 블루투스 헤드셋 '28g' 삼성 벽 못 넘었다

LG전자가 무게를 줄인 넥밴드를 출시했지만 삼성전자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LG전자는 A4용지 6장(30g)보다 가벼운 블루투스 헤드셋 'LG 톤플러스(HBS-500)'를 6일 국내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LG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형상기억합금을 주요 소재로 적용해 가벼우면서도 디자인의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무게를 29g으로 줄여 목에 주는 무게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삼성전자가 출시한 기어서클(모델명 SM-R130) 보다 무겁다.

삼성전자의 기어서클은 세련된 디자인을 겸비한 커널형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무게는 28g에 불과하다. 이 제품 역시 평소에는 서클 형태처럼 이어폰 양쪽을 자석으로 연결해뒀다가 음악을 감상하거나 통화를 할 때 간단하게 떼어내 귀에 꽂으면 된다.

다만 LG전자가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블루투스 4.1을 지원해 기어서클(블루투스3.0지원)에비해 저전력으로 스마트폰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김성훈기자

韓美 에너지신사업 협력 첫걸음

문재도 차관 "美, FTA체결국에 컨덴세이트 수출 허용해야"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 예외적으로 컨덴세이트(초경질원유) 수출을 허용할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문 2차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한미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에 참가해 이런 내용의 '에너지 신산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미국측 관계자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문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셰일혁명으로 시작된 미국산 LNG 수출은 환태평양 지역 에너지교역의 새 지평을 열고 있으며 컨덴세이트(초경질 원유)로 에너지교역 확대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덴세이트는 가스전에서 주로 발견되는 초경질 원유로, 최근 셰일가스 개발붐으로 미국 내 컨덴세이트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행사 참석자들은 원유수출 허용에 대해 의회 등에서 찬반논란이 있으나, 이를 허용할 경우 미국의 경제적 지정학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 최근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문 차관은 앞서 참석한 '한미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에서는 "전통적인 에너지 기술강국인 미국과 IT(정보기술) 강국인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신분활용해 협력하면, 양국은 물론 에너지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한미 에너지 협력 컨퍼런스'에 참석해 '에너지 신산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송정훈기자 jh@

車배터리 제조일자 표기 '일월년'순 개선

앞으로 KS(국가표준) 인증 자동차 배터리 구입시 제조일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자동차 배터리 자가 교체가 늘어나면서 '제조일자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개선키 위해 자동차용 납축전지 국가표준(KS C 8504)을 개정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표기는 영문과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되고 제조사 마다 형식이 달라 소비자가 읽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KS 개정에 따라 배터리 상단과 포장에 식별이 쉽게 일-월-년 순으로 제조일자를 표기함으로써 국민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선 제안은 최근에 정부 들어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민행복제안센터(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이다.

제조사들은 개선 논의 초기에 재고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제조일자 표기방식 변경에 난색을 표명했으나 제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수차례 조율한 결과, 국민 불편과 제조사의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기존 KS 인증업체는 개정된 KS 표준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제조일자 표기방식을 변경, 인증기관에 신청해야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조일자 표기방식 개선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된 자동차 배터리 제조일자 허위표기 문제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정훈기자

SK 최태원·최재원 석탄일 가석방될까?

CJ 이재현, 대법원 판결에 운명 결정될 듯 사회공헌·창조경제 등 친정부 행보에 열심

횡령 혐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감 중인 재벌 총수 중 가석방 요건을 갖춘 기업인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 3명이다.

이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만큼 특별사면도 가능하다. 특사는 올해에만 석탄일, 광복절, 추석, 성탄절 등 총 4번의 기회가 있다.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 상고심 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조만간 형이 확정될 경우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여기에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징역 4년 6개월), 이선애 전 상무(징역 4년)와 동양그룹 현재현 전 회장(징역 12년) 역시 특사 요건을 갖췄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이 올해 가석방·특사 명단에 포함될지에 재계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에 대한 사면 남용은 문제라는 인식을 내비친데다 대한항공 회항 사건으로 재벌 일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커지면서 이들의 사면·가석방을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이 여전히 냉랭하기 때문이다.

수장의 조속한 경영복귀를 바라는 재벌 기업들의 '총수 구하기' 작업이 성공하기까지는 여론의 눈치를 보는 정서는 물론 국민적 저항까지 극복해야만 하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5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혐의로

왼쪽부터 CJ그룹 이재현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기소돼 같은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 2년 3개월째 수감 생활 중이다.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이 없는 이상 앞으로 2017년 1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최 회장의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미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쳤으며 2016년 10월에야 풀려나게 된다. 구 전 부회장은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발행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을 확정 받고 2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최근 들어 SK그룹은 사회적기업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최태원 회장의 옥중 구상에 결실을 맺고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최 회장의 '조기 석방'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전 군불때기가 아니냐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다. 이들 모두 형식적으로는 심사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올해 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형기를 80% 이상 채우지 않은 기업인을 가석방 하는 것은 현재로선 어렵다"고 못 박으면서 최 회장은 내년 4월, 최 부회장은 내년 2월, 구 전 부회장은 오는 2016년 1월에나 가석방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석탄절이나 광복절, 성탄절 특사를 통해 조기 석방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

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특사 대상은 아니다. 물론 대법원이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5월 24일까지 신속하게 형을 확정할 경우 당장 석탄절 특사를 통해 혜택을 볼 가능성도 있다.

이에 CJ그룹 역시 정부 주도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건설에 적극 참여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CJ E&M도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통해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에 여념이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11일 서울 상암동 CJ E&M 센터에서 열린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에 참석했고 25일 '문화가 있는 날' 이곳을 다시 찾아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이지하기자 happyyjh@metroseoul.co.kr

LGU+, 'U+비즈 전자문서' 브랜드 런칭

LG유플러스는 'U+비즈(Biz)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 브랜드명을 'U+비즈 전자문서'로 통합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종이 없는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전자문서 종합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U+비즈 전자문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전자견적, 전자 수·발주 등 기업 간 계약에서부터 견적과 발주, 계산서 발행까지 하나의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기업 업무에 필요한 오프라인 문서를 인터넷 상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해 제공하는 전자문서 종합 서비스다. 특히 유통·제조 업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필요한 문서 발행과 관리는 물론 기업의 상품 재고까지 관리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대와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무 자동화와 페이퍼리스(paperless)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LG유플러스 최기무 솔루션 IoT사업 담당 상무는 "전자문서 솔루션 도입이 힘들었던 중소기업들도 'U+비즈 전자문서'를 이용하면 비용절감은 물론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브랜드 런칭을 계기로 향후 전자입찰, 전자공문, 모바일 문서 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재창기자

SKT, 요금감면에 멤버십·분실 보험까지 한번에 SK텔레콤은 오는 6일부터 다양한 혜택을 하나로 묶은 'T 클래스'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T 클래스 가입 고객은 요금약정할인 금액 대비 최대 120% OK캐쉬백 포인트 제공, VIP·골드멤버십 혜택, 분실 시 동일(동급) 단말로 보상, 무사고 24개월 후 재 가입 시 25만 OK캐쉬백 포인트 지급, OK캐쉬백 포인트 최대 10배 특별적립 등의 혜택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제공

5천억 투자 무재해 한다더니… 또 사망사고

현대제철 인천공장 쇳물에 직원 추락

현대제철 직원이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앞서 연이은 사망사고로 수천억원을 들여 마련한 현장 안전장치가 무색해졌다.

9일 현대제철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장 쇳물 주입장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이 모씨(43)가 지난 3일 오후 6시쯤 쇳물 분배기에 추락해 사망했다. 이씨는 쇳물 분배 설비를 하던 중 2.5m 아래에 있는 쇳물 분배기에 추락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 직원들의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 안에 있는 특수강 제조공장 신축 공사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이 모씨(62)가 레미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이씨는 현대제철 자체 구급차량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지난해 6월에는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일하던 김 모씨(38)가 약연 라인 정비 도중 기계장치가 가동돼 협착으로 사망했다.

같은해 1월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김 모씨가 실족하면서 냉각수에 빠져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2013년에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1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도중 질식하거나 추락해 숨졌다.

현대제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5명은 2013년 5월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발전소에서 아르곤가스 누출로 목숨을 잃었다.

그해 11월에도 유독가스 누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이에 사측은 2013년 말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책임자가 물러나는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하지만 2014년에도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제철은 안전 관리 강화를 재차 발표했다.

안전 감시제도 팀을 꾸려 3조 3교대로 상시 운영하는 한편 안전관리 인력도 기존 88명에서 200명으로 확충했다.

올해 안에 안전관리에 5000억원을 투자해 무재해 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현대제철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에 대해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작업장의 폐쇄회로(CC)TV 를 확보해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추락방지용 난간이 제대로 설치돼 있는지 등 안전환경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정필기자

KT, '링고비즈·식신' 업무 제휴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KT는 자사 맞춤형 통화연결음 서비스 '올레 링고비즈플러스'와 위치기반 서비스 기업 '씨온'의 맛집 추천서비스 '식신 핫플레이스'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올레링고비즈플러스'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들은 '식신 핫플레이스 비즈' 신규 가입 시 연회비 2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식신 핫플레이스 비즈' 연회원에 가입하는 업주들은 '올레 링고비즈플러스' 1년 이용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회비에서 할인받게 된다.

'링고비즈플러스'는 손님이 매장에 전화를 걸면 일반 통화연결 기계음 대신 매장 안내 멘트를 재생해 주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가게 홍보뿐 아니라 영업시간과 휴무일 등 매장 안내를 손님에게 바로 알릴 수 있다. 또 고객이 점주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도 설정한 안내 멘트가 자동 재생돼 영업시간 외에 업무전화를 받을 때 유용하다.

KT UC사업담당 김종원 상무는 "장기화된 불경기 속에서 가게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이들의 매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지하기자

필름사업 부진에 대표이사 사임?

SKC 최신원 회장, 들인 공에 비해 수익 안나

최신원 SKC 회장(사진)이 준비한 미래먹거리 '태양전지 필름 (PET 필름)' 사업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최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가운데 최 회장의 주력 사업인 필름분야의 부진을 놓고 벌어진 내부의 갈등이 원인이라게 업계의 관측이다.

5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SKC의 1분기 필름 부문 예상 영업이익은 62억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PET필름은 최 회장이 공을 들인 분야다. 최 회장은 지난해 10월 미국 조지아주에 특수 포장용 PET 생산 능력을 갖춘 시설을 증설하는 등 SKC의 필름 사업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당시 SKC측은 "증설을 통해 조지아 주 공장은 4번째 PET 생산라인을 갖추고 필름 사업의 주요 제품을 전량 독자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에 비해 수익률은 변변치 않다.

SKC의 필름부문 부진은 지난해부터 이어져왔다. 작년 3분기 필름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1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줄어들었다.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수준인 4.7%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필름사업 분야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영업이익은 17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7% 급감했다.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이다. 3분기 광학용 필름 판매량 집중 추폭풍으로 4분기 PET필름 판매량은 위축됐고 엔화 약세와 중국 저가 물량 유입으로 범용 필름제품 가격 경쟁은 더욱 거세졌다.

여기에 경쟁자는 늘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필름 공장을 증설했고 효성과 롯데케미칼은 신규 참가자로 등장했다.

디스플레이 시장상황 악화와 공급 과잉으로 인한 판매단가 압력의 악재로 2011년 13.4%에 달하던 필름분야의 영업이익률은 2014년 5.0%로 하락했다.

2014년 별도 기준 SKC의 필름부문의 매출 비중은 43%다. 같은 해 화학과 필름 사업부의 영업이익 기여도는 7:3 꼴 수준이다. 필름 사업의 부진은 SKC에 큰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

SKC 관계자는 "최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것은 책임경영 강화라는 그룹 기조와 상공회의소 연합회장 등을 맡은 최 회장의 대외활동에 대한 의지 때문일 뿐 SKC 경영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해 급여와 상여금으로 각각 23억원과 24억 원을 받아 SK그룹 계열사 등기임원 가운데 보수 1위를 차지했다.

/정혜인기자 12rsunid@metroseoul.co.kr

3일 김덕균 금호타이어 연구기술본부장(왼쪽 첫 번째)과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네 번째)이 서울 무악동 인왕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금호타이어 제공

금호타이어, 인왕산에 묘목 1500그루 심어

서울시와 공동 숲조성 행사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에 숲 조성 행사를 주최했다고 5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금호타이어 임직원과 시민 400여명은 탄소상쇄 숲 조성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 청단풍, 산수유 등 1500그루의 묘목을 심었다.

이번에 심어진 나무들은 앞으로 30년간 참여 시민의 이름으로 관리·보호된다.

산림청은 산림이 흡수한 이산화탄소 양을 모니터링해 5년 후 인증서를 발급해 그 효과를 증명한다.

박세창 금호타이어 기획관리총괄부사장은 "서울시민과 임직원들의 참여로 숲을 조성하게 돼 기쁘다"며 "대기오염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지속적 환경캠페인을 통해 아름다운 기억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일기자 ronan@

2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주 아라라콰라시에서 제라우두 아우키밍 상파울루 주지사, 마리우 프란사 상파울로 부지사, 마르쉘로 바르비에리 아라라콰라시장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 현지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 /현대로템 제공

현대로템, 브라질 철도차량 공장 '첫 삽'

미·터키 이어 세번째 거점 … 완공後 국내외 1200량 생산체제 구축

현대로템이 중남미 철도시장 공략의 생산거점 마련을 위한 첫 삽을 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종합중공업회사 현대로템은 2일(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주 아라라콰라시에서 제라우두 아우키밍 상파울루 주지사, 마리우 프란사 상파울로 부지사, 마르쉘로 바르비에리 아라라콰라시장 등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라질 현지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총 13만9000㎡(4만2000여평) 규모의 부지에 42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1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는 브라질 공장은 미국과 터키 공장에 이은 현대로템의 3번째 해외 현지 생산거점이다.

브라질 공장이 본격 가동에 돌입하면 현대로템은 터키(100량), 미국(100량)을 포함해 총 400량의 철도차량을 해외에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창원공장의 연간 800량 생산을 합치면 현대로템은 1200량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특히 현대로템은 브라질 공장이 본격 가동에 돌입하면 총 계약가의 60% 이상을 현지에서 구매 또는 제작해야 한다는 브라질 공공조달법에 따른 현지화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파울로 6호선 13호선 교외선 전동차, 리오 메트로 전동차 브라질리아 전동차 등 향후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예상되는 약 1500량 이상의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입지를 마련했다. 금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현지공장 설립을 토대로 향후 브라질을 넘어 페루,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인근 국가까지도 철도차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현대로템은 브라질 공장 설립으로 3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아라라콰라시와 현재 재정난으로 운영이 중단된 청소년 직업훈련학교를 후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현지와의 우호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승용기자 lsy@

금호 음악영재들, 故박성용 회장 추모 공연

한국의 메이케나스로 불리며 기업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던 故 박성용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의 타계 10주년을 기리는 추모공연이 열렸다.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4일 정명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연주회를 열었다고 5일 전했다.

이 공연은 피아니스트 손열음,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김재영, 비올리스트 김한나, 첼리스트 김민지, 이정란 등 금호 영재 출신 스타 연주자들이 지난 2005년 타계한 故 박성용 금호아시아나그룹 명예회장을 추모하는 연주회다.

연주자들은 젊은 음악인들에게 열정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여주던 故 박성용 명예회장을 기리며 슈베르트 현악삼중주 B플랫 장조, 멜리 피아노 사중주 a단조 등을 연주했다.

연주회에 참여한 피아니스트 손열음은 "친할아버지처럼 해외에서 콩쿠르가 있거나 연주회가 있으면 박수부대를 자청해 오셔서 기립박수를 보내주시고 문자메시지로 응원의 말을 보내주시던 모습이 그립다"고 말했다.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는 "2004년 워싱턴 케네디센터에서 미국 데뷔 공연을 할 땐 응원차 직접 오시기까지 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음악에 대한 회장님의 열정과 헌신은 정말 놀라울 정도였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김소희기자

현대오일뱅크, 남산골 벽화 그리기 봉사

현대오일뱅크(대표 문종박)는 선날 서울 필동 남산골에서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시측에 따르면 남산골은 평소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명소지만 초입에 약 50m의 시멘트 벽으로 된 주차장에 있어 삭막한 느낌을 줬다.

이에 현대오일뱅크 임직원과 중구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등 50여명은 4시간 동안 무채색의 시멘트벽 겉에 우리나라 전통 문양을 입혀 한옥마을의 지역특색을 살렸다.

현대오일뱅크는 2005년부터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복나눔 가족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이번 행사를 포함해 농촌일손 돕기, 독거어르신 나들이 지원 등 총 4회에 걸쳐 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희정기자

진로 흥망성쇠 함께…장진호 전 회장 사망

中서 심장마비로… 분식회계·횡령 수감생활 후 10여년간 해외도피

고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연합뉴스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63·사진)이 지난 3일 베이징에 있는 자택에서 심장마비 증세로 사망했다.

장 전 회장은 쓰러진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고 장 전 회장의 가족들이 급히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분식회계,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해외로 도피중이었다.

재계 순위 24위까지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던 진로그룹은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몰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2003년 법정관리와 계열사 분할 매각을 통해 공중분해됐다. 장 전 회장은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와 비자금 횡령 등으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5년형을 받고 캄보디아로 도피했다. 캄보디아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2010년 중국으로 도피처를 옮겼다.

장 전 회장은 진로의 흥망성쇠를 함께 한 인물이다.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진로에 입사했다. 선친인 장학엽 회장에 이어 1986년 제2대 회장에 취임해 진로의 사세 확장을 이끌었다.

진로그룹은 한때 계열사를 20개 넘게 거느리며 재계 19위까지 올랐지만 무리한 사세 확장으로 경영이 악화되며 1997년 외환위기때 몰락했다.

진로의 모태는 1924년 고 장학엽 회장이 평남 용강에서 설립한 '진천양조상회'다. 이후 장씨 일가는 1951년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동화양조'로 상호를 바꾸고 '금련'이라는 소주를 생산하면서 남한에 터를 잡았다. 이어 1954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서광주조'를 발족해 전국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진로 소주의 상징인 두꺼비도 이때 탄생했다. 진로라는 상호는 1975년부터 쓰기 시작했다.

진로는 1970년 국내 소주시장 1위에 오른 이후 줄곧 시장을 석권해왔다. 국민과 희로애락을 함께 한 소주를 주력사업으로 해온 덕에 인지도도 높았다.

소주사업에 전념해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던 진로가 부실의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것은 사업 영역을 급속히 넓히면서부터다.

장 전 회장은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르고서 이듬해인 1988년 서울 서초동 본사 인근에 아크리스 백화점을 열면서 종합유통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전선, 제약, 종합식품, 건설, 금융, 유선방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해 종합그룹으로의 변신을 시도하다 결국 1997년 9월 부도를 맞았다.

1999년 자회사 진로쿠어스맥주가 오비맥주에 매각되고, 2000년 위스키사업이 진로발렌타인스에 양도됐다. 결국 진로그룹은 2003년 법정관리와 계열사 분할 매각으로 공중 분해됐다. 이어 하이트맥주가 2005년 진로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장 전 회장은 분식회계, 비자금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4년 10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그가 1994~1997년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진로건설 등 4개 계열사에 이사회 승인없이 6300억원을 부당지원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9500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 등을 적용했다.

장 전 회장은 진로의 대주주였으나 2004년 4월 법원의 정리계획안 인가에 따라 진로 지분 전량이 소각됐다. 또 그의 재산도 대부분 법원에 의해 가압류됐다.

장 전 회장은 10여년간 캄보디아, 중국 등을 떠돌며 은행, 부동산 개발회사, 카지노 등을 운영해 재기를 노렸지만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2013년에는 기업 회생을 위해 마련했던 거액의 자금을 횡령했다며 옛 진로그룹 임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장기 도피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 장 전 회장은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점이 많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신화기자 csh@metroseoul.co.kr

이랜드 폴더 '봄 신상' 팔라디움 플렉스 출시 이랜드(회장 박성수)의 슈즈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폴더는 봄 신상 팔라디움 플렉스 마카롱 컬렉션을 선보였다. 팔라디움 플렉스는 프랑스의 워크부츠 브랜드 팔라디움이 만든 패밀리 슈즈. 프랑스의 대표 디저트 마카롱 색상을 입힌 톡톡한 컬러가 특징이다. /이랜드 제공

현대百, '패션&아트'로 고객과 감성 소통

첫 브랜드 슬로건 발표

현대백화점(사장 김영태)은 은 부정기획섹터 '패션&아트(FASHION&ART)'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이 고객 대상으로 슬로건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 슬로건은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패션과 아트를 통해 트렌드를 리드하고 문화 예술적 감성을 강화하겠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표현한 것으로 현대백화점은 앞으로 패션&아트를 주제로 모든 점포의 장식(VMD)과 마케팅, 영업 행사, 쇼핑백

포장지·사은품 디자인에 적용할 방침이다.

최신 트렌드의 패션과 예술적 감성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영감과 가치를 전달하는 매력적인 플랫폼인 백화점의 정체성을 고객들에게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 만들게 됐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이와 함께 유명 미술가와의 협업을 진행하는 등 예술 부문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지방시 협방 등의 브랜드 광고 이미지를 담당했던 영국 사진작가 팀 워커를 시각연출자(비주얼 디렉터)로 영입했다. 팀워커가 작업한 광고 이미지를 다음달부터 모든 디자인과 안내물에 사용할 예정이다.

유행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전체 백화점에 임시 매장(팝업스토어)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식품관에도 맛집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더 다양한 메뉴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김보라기자 bora@

롯데마트에 '식객' 뜬다

롯데마트(대표 김종인)는 9일부터 창고형 할인점 빅마켓 킨텍스점에 유명 맛집을 모아놓은 푸드코트인 '식객촌(食客村)'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맛의 진수 식객촌

食客村

식객촌은 대형마트 최초 맛집 전문 푸드코트로 유명 만화가인 허영만 화백이 9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취재해 완성한 만화에 실렸던 전국 실존 맛집 6곳이 입점된다. 무명식당(저염식 제철 쥐곡 밥상)·금산닭집(가마솥 통닭·가마솥 닭개장)·한옥집(묵은지 김치찜)·신라면옥(냉면)·봉스쿠진(퓨전 중식 요리)·이성당 카페(베이커리)로 구성된다.

롯데마트는 빅마켓 킨텍스점을 시작으로 푸드코트 맛집 효과를 검증한 후 향후 전국 점포 푸드코트에 지역 유명 맛집을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용 롯데마트 가정대체식 부문장은 "차별화된 먹거리에 대한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해 대형마트 최초로 맛집 전문 푸드코트를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먹거리를 선보이는 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대홈, 고객 정보보호 강화

현대홈쇼핑(대표 강찬석)은 지난해 11월 도입한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로 고객과의 통화 성공률이 두 배 이상 높아졌다고 5일 밝혔다.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으로 080 전화 받기를 꺼려하는 고객들을 위해 현대홈쇼핑이 지난해 업계 처음 도입한 신규 서비스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고객이 현대홈쇼핑 고객센터의 전화를 수신할 경우 현대홈쇼핑 CI와 '현대홈쇼핑 고객센터입니다'란 문구가 익정 화면에 제공된다.

그동안 현대홈쇼핑 고객센터에서는 하루 평균 1만6000건 정도 고객에게 전화했었으나 실제 통화성공률은 40%에 불과했다.

롯데百, 佛 디저트 매장 오픈

롯데백화점은 이달 본점에 두 개의 프랑스 디저트 매장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3월 백화점 최초로 '곤트란 쉐리에 블랑제리' 매장을 오픈한 데 이어 6일에는 아시아 최초로 '라 쿠르 구르몽드' 매장을 선보인다. 두 프랑스 디저트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다.

곤트란 쉐리에 블랑제리는 프랑스 유명 파티쉐 곤트란 쉐리에가 2010년 론칭한 베이커리 브랜드다. 파리·싱가포르·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에 매장 12개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품목은 버터의 풍미를 그대로 살린 갓 구운 크루아상과 밀가루·물·소금으로만 만드는 일명 '가난한 바게트' 빵이다.

스타벅스, 환경사랑 일장

스타벅스(대표 이석구)가 개인컵 지참 고객에게 300원을 할인해주는 다회용컵 할인 횟수가 1000만번을 넘어서 현금 할인 금액이 총 30억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다회용컵 1000만번의 사용 실적은 환경친화적인 커피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스마트한 소비 성향으로 믿틀하게 커피를 즐기는 고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큰 치킨 선보여 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큰 치킨'을 선보이고 있다. 창립 17주년을 맞은 롯데마트는 100% 국내산 닭을 사용한 큰 치킨(900g 내외)을 8일까지 정상가 9900원 대비 35% 가량 할인한 65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온라인몰, 유통채널 1위 등극

지난해 거래액 46조9000억원… 대형마트·백화점 제쳐

지난해 온라인 거래가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제치고 유통거래규모 1위 채널에 등극했다. 공격적 마케팅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산에 따른 모바일 쇼핑의 성장 때문으로 분석된다.

5일 통계청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를 통한 거래는 46조6364억원으로,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45조2440억원에 비해 1조3924억원 많았다.

관세청이 집계한 지난해 온라인 해외직접구매(직구)액은 15억4491만달러(1조 6600억원). 이를 포함, 온라인 쇼핑액은 46조9040억원으로 대형마트 거래액을 뛰어넘었다.

반면 백화점은 지난해 총 매출이 29조2321억원으로 전년대비 1.9% 감소하며 온라인몰이나 대형마트의 실적에 크게 뒤졌다.

실제로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연중 상시 세일, 상품 품질 강화 등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 부진의 여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롯데백화점은 전년 동기 대비 1.0%, 현대백화점은 0.8%, 신세계백화점은 1.3% 각각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도 3월 매출이 4.8%, 홈플러스는 2.4%, 롯데마트는 7.3% 줄었다. 반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 쇼핑몰은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픈마켓인 11번가의 경우 서비스 시작 6년만인 지난 2013년에 거래액 5조원을 돌파했다. 2013년 모바일 거래액은 6조5596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25.8% 늘어난 14조8090억원을 기록했다.

소셜커머스업계 선두 업체인 쿠팡도 지난해 거래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모바일 거래액은 2012년 1800억, 2013년 6000억원, 지난해 1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축이 웹에서 모바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빠르게 변하는 모바일 쇼핑 행태에 유연하게 대처한 결과 웹 기반 쇼핑과 모바일 쇼핑이 시너지를 내며 온라인몰이 급성장했다"며 "가격 경쟁력 등 강점이 있는 만큼 온라인몰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 연간 거래액

세부 내용	2014년	2013년	증감률
백화점 연매출	29조 2321억	29조 7968억	-1.9%
대형마트 연매출	46조 6364억	45조 1178억	[illegible]
온라인쇼핑몰 전 거래액	45조 2440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모바일 거래액	14조 8090억원	6조 5596억원	[illegible]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

K-뷰티 열풍… 중소기업도 상장 '잰걸음'

중소 화장품업체들이 K-뷰티 열풍을 등에 업고 속속 주식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브랜드숍 화장품 업체 '토니모리'는 지난 2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토니모리는 화장품 용기 제조사인 태성산업의 배해동 회장이 2006년 설립한 화장품 업체다. 작년 매출액은 2061억원, 영업이익은 148억원, 당기순이익은 116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국내 600여개의 매장과 미국, 홍콩 등 해외 20여 개국에 진출해 3000여 개의 매장을 열었다.

토니모리는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중국에 매장을 열고 법인을 설립하는 등 해외시장 공략을 본격화해 올해 4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토니모리에 이은 두 번째 브랜드 '라비오뜨' 론칭도 준비하고 있다.

토니모리는 지난달 바나두어 영림목재, 로만손-류앤소현 등 10개 기업이 공동 출자한 에스엠이즈(SMEs) 컨소시엄에 참여해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브랜드숍 화장품 기업인 '네이처리퍼블릭'도 대신증권을 주간사로 선정해 하반기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LG생활건강이 인수해 운영 중인 브랜드 '더페이스샵'의 창립 멤버가 나와 2009년 세운 화장품 회사다. 국내에 680여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해외에서는 일본, 미국, 대만, 말레이시아, 홍콩 등 14개국에 120여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매출액 추정치는 2500억원, 영업이익 추정치는 270억~280억원이다.

네이처리퍼블릭은 현재 온라인 쇼핑몰 형태로만 진출한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에 하반기 대형 매장을 여는 등 올해 해외 매장을 150개로 확대하고 국내 매장도 850개로 늘려 37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달팽이 크림'으로 중국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한불화장품의 자회사 '잇츠스킨'도 증권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김수정기자 [illegible]

'갑질횡포' 에코로바, 과징금 5300만원

아웃도어 브랜드인 에코로바가 협력업체에 횡포를 부리다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난 에코로바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5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코로바는 2012년 6월 협력업체에 등산화 6만 켤레를 주문한뒤 1차로 납품받은 2만 켤레의 대금(4억5000여만원) 가운데 2억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납품받고서 15일 이내에 대금을 줘야 했는데 짧게는 18일에서 길게는 37일까지 대금지급을 미뤘다.

에코로바는 또 2차로 납품받을 4만 켤레(약 9억원어치)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에코로바는 1차 납품 대금을 뒤늦게 결제해 추가 납품이 지연됐음에도 협력업체에 지연 책임을 물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방적 발주 취소 같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겠다"면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illegible]

한국P&G "혁신 통해 시장 성장 견인할 것"

"혁신적인 제품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견인할 것입니다."

한국P&G가 2일 부산 파크하얏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끈 다양한 혁신 전략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수경 대표(5일 사진)는 "1989년 한국에 첫 진출 이후 올해로 26주년이 됐다"며 "장기간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P&G는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수경 대표는 최근 출시한 신제품의 성과와 함께 제품 혁신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 P&G는 지난 2012년 이 대표 취임 후 다우니·페브리즈·질레트·SKII 등 다양한 브랜드에서 신제품을 내놓았다.

고농축 섬유유연제 시장 8배 성장
혁신적 마케팅·전자상거래 시장 집중

전체 섬유유연제 시장에서 2011년 5% 미만이었던 고농축 섬유유연제 비중은 다우니의 진출 이후 3년만에 8배 이상 커졌다. 향기에 주목한 신제품을 출시해 혁신을 시도했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한국P&G는 향수만큼 좋은 향을 콘셉트로 다우니 퍼퓸 컬렉션 퍼퓸 클래식 등을 선보였으며 새로운 카테고리인 향기지속제 '아로마쥬얼'도 출시했다.

페브리즈의 경우 국내에서 섬유탈취제라는 카테고리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사형·차량용·에어·비치형 등 다양한 용도별 제품군을 확장했다. 이 외에도 코스모 인피니티 생리대' 세계 최초 사물한 터넷 적용 오랄비 스마트시리즈 등 혁신적 제품을 출시한 바 있다.

한국 P&G는 마케팅과 유통 채널에서도 혁신을 시도했다. 올림픽 국가대표 어머니를 조명한 올림픽 마케팅 '땡큐맘 캠페인'을 통해서는 매출이 1.5배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 대표는 "이는 기존 선수 위주의 마케팅 방식에서 탈피해 얻은 결과"라며 "리우 올림픽 땡큐 올림픽도 공식 스폰서로 후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P&G는 또한 회원 대상 온라인서비스인 '리빙 아티스트' 등 디지털 채널 혁신을 통해 전자상거래 규모를 키워오고 있다. 지난 3년간 평균 20% 이상 성장률을 지속해 왔다. 전자상거래 매출 비중으로만 보면 P&G 진출국 중 한국이 1위다. 유통 트렌드가 이커머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 같은 혁신을 시도, 디지털 혁신 리더로 자리매김 할 방침이다.

한국P&G는 여성 뷰티용품, 섬유용품, 그루밍 용품 등 15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이수정기자 [illegible]

"문화공연 보며 따뜻한 봄 즐겨요"

강강술래 '드로잉 피노키오' 공연티켓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가족과 연인·친구와 함께 즐겁게 볼 수 있는 문화공연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인다.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 문의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명보아트홀 지하1층 디온홀에서 공연되는 드로잉 피노키오 공연티켓(1인2매)을 증정한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번 공연에는 마술 같은 샌드애니메이션, 야광드로잉, 페인트드로잉 등 드로잉쇼를 비롯해 열정적인 아크로바틱 댄스 서커스쇼, 아날로그 감성의 감동적인 아빠와 아이의 러브스토리 등을 진행한다.

이달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small.com), 전화주문(080-924-9292)을 통해 불고기세트(한우불고기500g+한돈양념500g+돼지양념750g)를 33% 할인된 3만6000원에 판매한다.

한우사골곰탕(500ml/3팩/6인분)과 육개장(500ml/3팩/6인분), 갈비탕(500ml/3팩/6인분)으로 구성된 보양식 삼동이세트도 50% 할인된 3만원에 구매 가능하다.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보관이 가능하며,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다. 매장 인기메뉴인 강강양념 또는 솔라양념 1팩(520g)을 각각 4만3000원에 판매하며 구매 시 한우불고기(500g)를 덤으로 증정한다.

/정보라기자 bora8869@metroseoul.co.kr

한국장학재단, 코멘트데이 개최

사회 지도층 '나눔지기'와 대학생 '배움지기'의 만남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4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제6기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 발대식인 '코멘트데이(KorMent Day)' 행사를 개최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차세대리더육성멘토링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젊은 대학생 인재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국가 인재육성지원 프로그램이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그 동안 사회로부터 받은 유무형의 혜택을 환원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어 지난 2010년 5월 출범하였고, 올해 6기 발대식 행사를 갖게 됐다.

김덕준 서공미디어 부회장, 권다윤 어코르 앰배서더 코엘 대표, 권점주 신한생명 부회장, 김판호 한국 HP부사장, 변도윤 전 여성부 장관, 안양호 전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조 벽 동국대 석좌교수, 황경인 그룹세브코리아 대표, 이영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원장, 한경아 한국IBM 상무 등 대기업 CEO 외에 사회 각 분야 리더로 구성된 '나눔지기(멘토)'는 올해 280여명이 참여했다. 대학생 '배움지기(멘티)'는 올해 2,400여명이 참여했다.

제6기 나눔지기들은 앞으로 1년 동안 8명 내외의 배움지기들과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시로 접촉하는 등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젊은 인재들에게 전수할 예정이다.

/김수정기자 ksj0215@

/르네상스 서울 제공

르네상스서울, 야외비어가든 14일 개장

르네상스서울은 따뜻한 봄을 맞아 직장인들을 위한 도심 속 휴식공간인 야외 비어 가든을 14일 개장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주중 저녁 6시부터 10시 사이에 이용 가능한 비어가든 패키지는 비어 가든을 찾는 고객들이 실속있는 가격에 무제한 음료 또는 무제한 그릴 뷔페 등을 풍성하게 즐길 수 있다.

패키지 메뉴로는 BBQ와 샐러드 바, 빵, 수프, 디저트를 비롯한 알찬 메뉴 구성으로 가벼운 저녁을 즐길 수 있다.

50명 이상 단체 예약 시에는 주말(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하며 별실도 마련돼 있어 단체 모임에 최적의 장소다. 가격은 4만5000원, 1만5000원 추가 시 레드 또는 화이트 와인을 무제한으로 제공된다. (10% 봉사료 및 10% 세금 포함)

호텔신라, '드림메이커' 3기 출발

호텔신라(사장 이부진)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교육 멘토링 프로그램인 '드림메이커'의 올해 첫 출발을 알렸다.

호텔신라는 4일 제주시 연동 소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드림메이커' 3기 수강생으로 선발된 제주지역 고등학생 80명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메이커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드림메이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제주 관광 서비스 산업의 이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들은 후 호텔신라 직원으로 구성된 멘토들과 첫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곽관순 제주신라면세점장은 "드림메이커 프로그램이 고등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고 꿈과 재능을 발휘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텔신라가 서울시교육청·제주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 중인 '드림메이커'는 서울·제주지역 고등학생에게 분야별 진로 직업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소아청소년과 '감염 제로구역' 개설

미즈메디병원 키즈센터

미즈메디병원 키즈센터는 병원 외래에서의 영유아 감염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진료공간을 '건강한 아이(Well Baby)' 클리닉과 '아픈 아이(Sick Baby)' 클리닉 구역으로 구분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키즈센터 L층에 마련된 건강한 아이 클리닉에서는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등이, 1~2층 아픈 아이 클리닉에서는 보통 소아과와 같은 질환 진료와 처방 등이 이뤄진다.

미즈메디병원 측은 "병원에서 오히려 병을 얻어 온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영유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또 새롭게 리모델링한 미즈메디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다양한 색채를 사용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이용해 독특한 인테리어를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클리엣, 봄맞이 직구회원 모집 대잔치

세원산업은 내 손안의 에스테틱 클리엣의 국내 직구 회원 모집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클리엣 미용기기는 수분측정, 이온 마사지, 진동클렌징, 진동파운데이션의 다섯 가지 기능을 포함시킨 올인원제품이다.

중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구로 9만9000에 판매하며 특별히 행사 기간 중 구매시 3만원대 비타민C 세럼을 2개 무료로 증정한다. 회원에게는 추가 리필 세럼 구매시 30%할인 혜택을 준다.

서울모터쇼 인산인해… 메트로신문도 인기

190개사 친환경차·SUV 등 신차 대거 전시… 주말 관람객 절정

지난 3일 비가오고 흐린 날씨임에도 2015 서울모터쇼로 향하는 관람객의 열기는 뜨거웠다. 전국 각지에서 서울모터쇼를 관람하기 위해 남녀노소가 전시장을 찾았다. 학생과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입장권을 사기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에서 자동차를 사랑하는 관람객이 많다는 것을 보여줬다. 서울모터쇼 매표소는 오전 10시에 판매를 시작하지만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전시장에 입장하기위해 9시부터 일찍 나와 줄을 섰다. 기다리는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메트로신문을 집어 들고 어떤 신차와 콘셉트카들이 나왔는지 확인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서울모터쇼 주최측 집계 입장권 사전 판매량은 16만 1500매를 기록했다. 완성차 32개 브랜드, 부품 및 용품 131개사, 튜닝 18개사, 이륜차 4개사 등 190개사에 대한 관람객들의 열기를 보여줬다. 서울모터쇼 조직위원회는 혼잡한 관람을 위해 2년 전보다 현장 판매 창구를 늘리고 무인발권기를 도입하는 등 관람객의 구매 시간을 단축하는데 신경을 쓴 모습이다.

박지성을 보기 위해 쉐보레 부스 앞에 모인 관람객들이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서울모터쇼를 방문한 가족이 메트로신문을 관심있게 보고 있다.

메트로신문 서울모터쇼 특집판 배포하는 사진.

두 아이를 가진 40대 관람객 박기영씨는 야외 활동에 적합하고 실내 공간이 넓은 차를 구매하기 위해 서울모터쇼를 방문했다며 특히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서울모터쇼 참가 업체들은 SUV 차량의 강세를 실제로 증명하듯 여러 SUV차량을 선보였다. 현대자동차의 '올 뉴 투싼' 한국닛산의 '올 뉴 무라노' 르노삼성의 '에스파스' 쌍용의 콘셉트 'XAV' 푸조의 'RX H 508', '푸조2008' 등이 소개됐다. 올해 상반기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국내 판매 차량 중 SUV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에는 SUV차량 작년 1분기 대비 구매가 13.9% 늘어나 8만 8285대를 기록했다.

SUV차량 외에도 눈여겨볼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미래형 콘셉트카 엔듀로(Enduro), 기아자동차의 신형K5를 비롯해 콘셉트카 KND-9, 대형 세단 계획은 둔 르노삼성의 콘셉트카 이오랩, 쌍용자의 첫 콘셉트카 XAV 등이 있다.

가족관람객 대상의 체험행사와 컨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제2전시관에 마련된 튜닝 및 자동차생활문화관 에서는 친환경 차 시승은 할 수 있으며 자동차안전체험관과 자동차 패션 융합관, 브릴리언트 메모리전 등 산업융합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전시행사도 볼 수 있다.

한국지엠 쉐보레 부스에서는 박지성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앰버서더가 보육시설 유소년 축구팀 '인자일드' 선수들을 만나 격려 하는 시간을 가졌다. 쉐보레 레이싱팀과 함께하는 행사도 열렸다. 쌍용자동차 부스에는 아이돌그룹 EXID와 레이나 등 인기가수들이 K-Pop 콘서트를 열어 주말에 서울모터쇼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흥을 돋웠다. 모터쇼 기간 중 매주 주말 오후 5시에 인디밴드 초청 '록 롤릭 페스티벌'을 열 예정이다.

서울모터쇼 조직위는 개막식인 3일에는 3만1743명, 4일에는 9만1048명 등 총 12만2791명이 전시장을 찾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주말 이틀간은 15만명의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10회를 맞는 서울모터쇼는 오는 12일까지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흘간 열린다.

/이한형 정용기기자 ranan@metroseoul.co.kr

지난 4일 일산 킨텍스 서울모터쇼 쉐보레 부스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엠버서더 박지성(왼쪽)이 방문해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과 함께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국지엠 제공

지엠 부스 박지성 깜짝 등장 보육원 축구팀 선수들 응원

한국지엠주식회사는 모터쇼 개막 이후 첫 주말인 4일 쉐보레 부스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은 맨유 앰버서더 박지성을 초대해 깜짝 이벤트를 열었다.

이날 박지성은 쉐보레 부스에서 지엠 직원들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한국지엠한마음재단'과 보육시설 유소년 축구팀 '인자일드' 선수들과 만났다.

한국지엠 측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가대표를 꿈꾸는 인자일드 선수들의 소원이 '박지성과의 만남'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들의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신시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인자일드 유소년 축구팀은 평소 한마음재단이 후원하는 신명보육원, 제암원, 브라데보육원, 광진원 등 7곳의 인천지역 보육원생으로 구성된 유소년 축구팀으로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장래가 촉망 되는 유소년 축구팀이다.

박지성은 쉐보레 부스를 방문한 인자일드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축구선수로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유소년 축구선수들을 후원해 주는 한국지엠 한마음재단과 한국지엠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인자일드 선수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국가대표 축구선수라는 꿈을 반드시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소리기자 fdmdmd@

레저용 차량 잘 나간다

신차 판매 10대 중 4대 SUV·미니밴

올해 들어 팔린 국내 자동차 10대 중 4대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미니밴 등 레저용 차량이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상용차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5개사의 판매량은 작년 1분기보다 2.0% 증가한 총 27만9844대로 집계됐다.

이가운데 레저용 차량(RV)은 작년 1분기보다 22.1% 급증한 10만8904대였다. 이에 따라 전체 판매량에서 RV 비중은 38.9%를 기록해 2004년 40.0%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미니밴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미니밴은 총 2만619대가 팔려 전년보다 76.4% 급증했다.

SUV도 13.9% 늘어난 8만8285대가 판매됐다. SUV 판매 비중은 31.5%로 2004년 역대 최대치였던 30.6%를 넘어섰다.

RV 판매량 급증은 업계들이 내놓은 신차들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아차가 선보인 신형 쏘렌토는 올해 1분기 1만8987대가 팔려 작년 1분기 구형 모델보다 244% 급증했을 뿐 아니라 국내 RV 모델 가운데 판매 1위를 차지했다.

기아차의 신형 카니발 역시 작년 같은 기간 구형모델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만4642대가 팔리며 국내 미니밴 시장을 주도했다.

쌍용차의 소형 SUV 티볼리와 르노삼성의 QM3도 각각 8037대와 3148대가 팔리며 선전했다. 한국GM은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등 쉐보레 RV가 인기를 누렸다.

여기에 현대차가 지난달 17일 출시한 올 뉴 투싼도 3월 말까지 1만1000대가 계약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 앞으로 SUV 판매 비중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업체들이 다양한 RV 모델을 내놓는 것도 RV의 인기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아차는 얼마 전 실내 편의성을 높인 7인승 카니발 모델을 출시했고, 현대차는 올 뉴 투싼을 R2.0 디젤 엔진과 U2 1.7 디젤 엔진 등 2가지 모델로 나눠 선보였다.

/양소리기자

쌍용차, 티볼리 출시 이벤트 1등 경품 차량 전달식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티볼리 출시를 기념해 실시한 이벤트 경품당첨자 2명에게 티볼리 차량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쌍용차는 전날 2015 서울모터쇼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전시관에서 송영한 국내영업본부장과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1등 경품으로 티볼리를 전달했다.

1등 당첨자 김정우씨(31·부산 사상구)는 "스타일리시한 유러피언 디자인에 반해 출시 전부터 큰 관심을 갖고 있던 티볼리를 갖게 돼 무척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첨자인 최보름씨(31·서울 중구)는 "티볼리와 함께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달릴 생각을 하니 벌써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지난 1월 티볼리 출시를 기념해 1등 경품으로 티볼리(1대)를 내걸고 전국 전시장에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했다.

쌍용차 전시장에서는 EXID 레이나(오렌지카라멜) 등 가수들이 펼치는 K-Pop 콘서트, Rock Hohc 페스티벌 등 음악무대가 이어졌다.

/이총철기자 roman@

"투어 전 한국 포함됐는지 꼭 확인"

밴드 '오아시스' 출신 노엘 갤러거

솔로 프로젝트 '하이 플라잉 버즈'로 내한
오아시스 해체 후에도 변함없는 팬들 지지
"K팝? 술이름 같아… 아는건 '강남 스타일'"

밴드 오아시스(Oasis)의 전 리더 노엘 갤러거(Noel Gallagher)가 솔로 프로젝트 하이 플라잉 버즈(Noel Gallagher's High Flying Birds)로 한국을 찾았다. 갤러거는 3·4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시어터에서 하이 플라잉 버즈 정규 2집 '체이싱 예스터데이(Chasing Yesterday)' 발매 기념 투어를 개최, 이틀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 첫 공연이 열리기 전 3일 오후 5시55분 W호텔에서 리허설을 마친 갤러거를 만났다.

◆변함없는 미스터 갤러거

이날 갤러거는 인터뷰 장소에 검정색 점퍼 차림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내한 당시 한 팬이 사인을 요청하다 갤러거가 입은 점퍼에 볼펜 자국을 낸 일이 있었다. 평소 팬들에게 욕설이 섞인 멘트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갤러거답게 "오늘 검정색 재킷을 입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내 옷에 볼펜을 묻힌 녀석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넌 정말 XXXX야. 그거 진짜 좋은 재킷이었단 말이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한국에 다시 와서 좋다. 2006년 오아시스로서 처음 내한했을 때만 해도 아무 것도 몰랐다. 그저 일본과 가까이 있단 이유만으로 일본과 비슷한 나라일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이후부턴 투어 스케줄에 한국이 포함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이번 앨범은 갤러거의 첫 셀프 프로듀싱 작품이다. 가장 마음에 드는 곡으로 꼽은 오프닝 트랙 '리버맨(Riverman)'을 포함해 오아시스 시절을 연상케하는 '록 올 더 도어스(Lock All The Doors)' 등 그의 음악 세계를 느낄 수 있는 곡들이 담겨있다. 갤러거는 오아시스를 결성해 '제 2의 비틀즈'라는 찬사를 받으며 브릿팝의 부흥기를 이끌었고 총 70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며 전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러다 동생 리암 갤러거와의 불화로 인해 오아시스는 해체됐다.

형 노엘과 동생 리암은 각각 하이 플라잉 버즈와 비디아이라는 밴드로 각자의 길을 걸었다. 최근 리암의 비디아이는 해체를 결정했다. 사이가 나쁘다 해도 형으로서 한 마디 해줄 수 있을 법했다. 그러나 갤러거는 "글쎄. 딱히 할 말이 없다"고 짧고 시큰둥하게 답했다.

◆그 가수에 그 팬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을 '리버맨'으로 꼽은 이유에 대해 "사운드가 최고니까. 한 노래를 다른 노래보다 좋다고 말하긴 어렵다. 그것 참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팬들에게 "특별히 더 좋은 노래는 없다. 수록곡 전부 다 들어라"고 주문했다. 세계적 밴드 블러의 데이먼 알반과 같이 작업하게 된 계기를 묻자 "그냥 뭐하느냐고 물었더니 별 거 없다고 해서 같이 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시종일관 독설가다운 답변으로 취재진을 들었다 놓기 일쑤였다.

"난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무대 위나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여기나 내겐 다 똑같다. 내가 왜 머리를 왜 그대로 두고 있겠니."

끝은 인터뷰가 끝나갈 때쯤 한 중국인 기자가 투어 일정에 중국이 빠졌다고 묻자 갤러거는 "예전에 U2, 비스티 보이즈 등과 함께 미국 뉴욕에서 티베트 독립 지지 공연을 했던 것 때문에 중국 정부로부터 제재 당했다"고 답했다. 이어 혹시 K팝 중 아는 곡이 있느냐는 한 취재진의 질문엔 "싸이의 '강남스타일'만 안다. 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곡은 모른다. K팝이 뭐냐. 꼭 술 이름 같은데"라고 답했다. 입에 발린 말은 절대 하지 못하는 갤러거다운 멘트였다.

한편 갤러거는 4일 공연에서 약 20곡을 불렀다. 그는 "헬로우" "땡큐" "엑설런트" 외에 별 다른 멘트 없이 공연을 이어갔다. 그러자 관객들은 "오아시스!" "뭐라고 말 좀 해봐! 멍청아!(Say Something, Prick!)"라며 짓궂게 소리쳤다. 그 가수에 그 팬이었다.

갤러거가 앞서 인터뷰에서 밝힌대로 이날 공연에선 오아시스의 노래도 들을 수 있었다. 앙코르 무대에서 전설적인 히트곡 '돈트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가 흘러나오자 무대와 객석은 하나가 됐다. 한국 팬들의 열성적인 '떼창'에 갤러거는 "씨유순(See You Soon)"이라고 짧게 인사한 뒤 다음을 기약했다.

/김지민 기자

star bag

후아유 독특한 모범생

배우 이초희가 KBS2 새 월화극 '후아유-학교 2015'에 합류한다. 극중에서 모범생 소녀 이시진 역을 맡는다. 타인의 악평이나 비판을 쥐고 있을 때는 존재감을 느끼는 독특한 캐릭터다. 갈등을 일으키며 여주인공 김소현과 극을 이끌 예정이다. 강남 사립고를 배경으로 리얼한 학교 생활을 그린 '후아유'는 오는 27일 첫 방송된다.

식목일 기념 텀블러 사용 인증

배우 홍종현이 식목일을 맞이해 나무 살리기에 동참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지만 나무 살리기에 동참합니다. 오늘부터 종이컵 사용 줄이고 텀블러 사용하기. 조금 불편하지만 함께 해요"라는 글과 함께 일회용 컵이 아닌 텀블러를 들고 있어 사진을 사로 잡았다. 홍종현은 오는 30일 영화 '위험한 상견례2' 개봉을 앞두고 있다.

'가족을 지켜라' 비행 청소년

배우 이열음이 KBS1 새 일일극 '가족을 지켜라(가제)'에 캐스팅됐다. 그가 분한 오세미는 비행 청소년으로서 노래로 기성 세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록커다. 하나 뿐인 동생에 대해서는 애정이 강한 인물을 연기할 예정이다. '당신만이 내 사랑' 후속 작으로 다음달 방송 예정이다.

코믹 대신 진지한 오열

유병재가 진지하게 눈물을 흘렸다. tvN 금요드라마 '초인시대' 측이 공개한 사진에서 유병재는 수심 가득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다리 위를 걷다가 설움이 폭발한 듯하다. 특히 그동안 보여줬던 과장되고 코믹한 눈물이 아니라 시청자의 궁금증을 자극한다. 이는 1화의 한 장면이다. 10일 오후 11시30분 첫 방송.

팔로우

위자

검은손

봄 극장가, 때 아닌 공포영화 붐

'팔로우' '위자' '검은손'… 신선한 공포로 새로운 바람

꽃이 피는 봄 극장가에는 때 아닌 공포영화 붐이 일고 있다. '팔로우' '위자' '검은손' 등이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작품들이다.

'팔로우'는 10대들을 주인공으로 오직 내 눈에만 보이는 공포의 존재가 죽을 때까지 쫓아온다는 기괴한 저주를 그린 뉴웨이브 호러영화다. 롱테이크 촬영과 훔쳐보는 듯한 트래킹 숏, 기괴하면서도 긴장감을 극대화시키는 음악으로 자극적이고 선혈이 낭자한 장면 없이도 극한의 공포를 만들어냈다.

해외에서는 "호러 역사상 가장 기발한 저주를 탄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영화의 신선도를 평가하는 로튼토마토 지수에서도 한때 100%를 기록하는 등 올해 주목할 호러영화의 등장을 알렸다. 지난달 13일 미국에서 4개관으로 개봉한 영화는 기대 이상의 흥행 성적으로 개봉 3주차에는 300개 확대된 1200여개 극장에서 상영을 이어가 화제가 됐다.

오는 16일에도 두 편의 공포영화가 개봉을 준비 중이다. '위자'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의 감독이자 '더 퍼지'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 등 여러 편의 공포영화를 제작한 마이클 베이 감독이 제작을 맡은 작품이다. 최근 화제를 모았던 공포영화 '인시디어스'의 제작진도 참여했다.

영화는 죽은 친구의 영혼을 불러내기 위해 '위자' 게임을 시작한 다섯 친구들이 그로 인해 서서히 밝혀지는 한 전안의 충격적인 비밀과 마주하게 된다는 내용을 그렸다. 북미 지역에서는 지난해 할로윈 시즌에 먼저 개봉했다. 당시 개봉 주말에만 2000만 달러(약 220억원)에 육박하는 흥행 성적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위자'와 같은 날 개봉하는 '검은손'은 김성수, 한고은, 배그린 등이 주연을 맡은 한국 공포영화다. 의문의 사고로 손 접합수술을 하게 된 유경(한고은)과 그의 연인이자 수술 집도의인 정우(김성수)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2008년 개봉한 공포영화 '외톨이'를 연출한 박재식 감독의 신작이다.

한고은은 이번 영화로 데뷔 20년 만에 첫 스크린 주연을 맡았다. 기존에 보여준 카리스마 있고 세련된 이미지를 벗고 공포 연기에 도전했다. 김성수는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선택도 마다하지 않은 야심가 캐릭터로 악역 연기를 펼쳤다.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으로 얼굴을 알린 신예 배그린은 한고은의 여동생 역으로 존재감을 발휘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이미연, 15년 의리 지켰다

신생 기획사 씨그널엔터와 전속계약

배우 이미연이 1인 기획사로 운영했던 굳이 이앤지 컴퍼니를 떠나 씨그널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씨그널엔터테인먼트 측이 전했다.

이미연은 2009년 영화 '물고기 자리'로 만난 현 씨그널엔터테인먼트 그룹의 매니지먼트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송대현 부사장과의 인연으로 이번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인디안썸머' '중독' '특수천' 등의 영화와 드라마 '명성황후'를 함께 했다.

또한 이미연의 이번 전속계약에는 최근 10년 동안 함께 해온 매니저도 포함된다.

송대현 부사장은 "이미연의 영입은 회사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씨그널엔터테인먼트와 독보적인 존재감을 지닌 배우 이미연의 만남이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미연의 작품활동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 활동 역시 계약은 새의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씨그널엔터테인먼트에는 이미연 외에도 김민주, 전세진 등이 소속돼 있다. 자회사인 더좋은이엔티를 통해서는 송승헌, 채정안, 장희진 등이 보진하고 있다.

/장병호기자

고아성, 차기작은 영화로

'오빠 생각' 캐스팅…임시완과 호흡

배우 고아성이 영화 '오빠 생각'(감독 이한)에 캐스팅됐다. '우아한 거짓말'에 이어 이한 감독과 두 번째로 작업하는 작품이다.

'오빠 생각'은 1950년대 초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모든 것을 잃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만은 지키고픈 한 군인이 전쟁터 한 가운데에서 부르는 아름다운 기적을 그린 드라마다. 한국전쟁 당시 실존했던 어린이 합창단을 모티브로 삼았다.

고아성은 합창단 아이들을 돌보는 박주미 역을 맡았다. 최근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로 당찬 캐릭터를 보여주고 있는 고아성은 이번 영화에서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가슴 따뜻한 인물이자 전시 상황에서도 강단과 소신을 잃지 않는 캐릭터로 성숙한 매력을 보이을 예정이다.

고아성의 캐스팅에 대해 이한 감독은 "(고아성은) 또래 배우들이 갖는 전형성이 없는 여배우"라며 "'우아한 거짓말'로 함께 작업하면서 어디에서도 보지 못했던 연기와 모습이 인상 깊었다. 다시 한 번 꼭 호흡을 맞추고 싶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고아성이라는 배우의 보다 성숙하고 새로운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영화는 앞서 임시완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됐다. 임시완은 합창단을 맡게 되는 주인공 한상열 소위를 연기한다. '오빠 생각'은 현재 촬영을 준비 중이다.

/장병호기자

송지효 라이벌은 나!

신인 지소연 '구여친클럽' 캐스팅

배우 지소연이 tvN 새 금토드라마 '구여친클럽'에 출연한다고 3일 소속사 키이스트가 밝혔다.

지소연은 지난해 종영한 MBC 일일드라마 '빛나는 로맨스'로 데뷔한 신인 배우다. 당시 시크한 팜므파탈 캐릭터로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줬다.

'구여친클럽'에서는 송지효가 연기하는 김수진의 친구이자 라이벌 관계인 심주희 역을 맡았다. 화려하고 세련된 외모를 지닌 웹툰 투자사 직원으로 변요한이 연기하는 방명수와 김수진 사이에서 극의 긴장감과 재미를 동시에 안겨줄 인물이다.

지소연은 소속사를 통해 "좋은 드라마에 참여하게 돼 기쁘고 설렌다. 심주희는 솔직하면서도 당당한 매력을 지닌 캐릭터다. 선배들과 함께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연 소감을 전했다.

'구여친클럽'은 인기 웹툰 작가 방명수와 그의 전 여자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지소연을 비롯해 송지효, 변요한, 이윤지 등이 캐스팅을 확정했다. '슈퍼대디열' 후속으로 다음 달 첫 방송될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SCREEN

왕좌의 게임5

대한민국 최초 | HBO 동시방송

4월 17일 [금] 밤 11시 첫방송

막내 KT 만난 KIA 6연승 '신바람'

깜짝 선발 문경찬 프로 데뷔승 · 롯데 강민호 홈런 3방 두산 대파

KIA 타이거즈가 막내 KT 위즈를 꺾고 가뿐히 6연승을 내달렸다. 반면 KT는 7연패의 수렁에 빠졌다.

KIA는 5일 경기도 수원 KT 위즈 파크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KT와의 원정경기에서 대졸 신인 문경찬의 깜짝 호투를 앞세워 4-1로 승리했다. KT와의 3연전을 싹쓸이한 KIA는 6연승으로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

건국대를 졸업하고 지난해 2차 2라운드로 KIA에 입단한 문경찬은 이날 선발로 나서 5⅓이닝 4피안타 1볼넷에 1점만을 내주고 프로 데뷔전에서 첫 승을 따내는 기쁨을 누렸다.

애초 선발로 예정됐던 임준혁이 허리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대신 선발로 나선 문경찬은 구속 자체는 빠르지 않았지만, 공격적인 투구와 절묘한 커브로 KT 타선을 농락했다.

타선에서는 1회초 선두타자 김원섭이 유격수 박기혁의 송구 실책으로 출루한 뒤 이어진 2사 만루에서 김다원이 좌월 2루타를 쳐내 선취 2점을 뽑았다. 7회 1사 1·3루에서 최희섭의 중전 적시타와 8회 이호신의 추가 타점으로 4점을 뽑았다.

KIA 마무리 윤석민은 9회말 등판해 김태훈·마르테·김상현을 가볍게 처리하고 시즌 3세이브째를 따냈다.

◆ NC 손민한 653일만에 선발승

마산구장에서는 NC가 한화 이글스를 9-2로 누르고 3연승을 거뒀다.

NC는 6회말 김태군·김종호의 연속 안타와 박민우의 희생번트로 1사 2·3루 기회를 잡았고, 이종욱의 중전 적시타로 한 점을 뽑았다. 이어 2회말 선제 솔로포를 터뜨린 에릭 테임즈가 호투하던 한화 선발 유창식의 시속 125㎞짜리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중간 담을 넘기는 3점 아치를 그렸다. 이호준은 2사 1루에서 바뀐 투수 박정진을 공략해 좌월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NC는 홈런 2개를 포함해 6회에만 6점을 뽑으면서 승부를 결정지었다.

NC 선발 손민한은 6이닝 5피안타 1실점(비자책)의 호투로 2013년 6월 21일 목동 넥센 히어로즈전 이후 653일 만에 선발승을 거뒀다.

◆ 정성훈 9회말 끝내기 안타

잠실구장에서는 LG 트윈스가 9회말 극적인 정성훈의 끝내기 안타로 삼성 라이온즈를 6-5로 꺾었다.

사직구장에서는 롯데 자이언츠가 강민호의 홈런 3방 등 타선이 터지며 두산 베어스를 16-4로 완파했다.

/유선준기자 m.ian@metroseoul.co.kr

정성훈 끝내기! 5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5 프로야구 삼성과 LG의 경기에서 9회말 정성훈(왼쪽)이 끝내기 안타를 날리고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기성용 7호골, 亞 선수 한 시즌 최다 新

평점 7.66 팀내 세번째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활약하는 미드필더 기성용(26)이 시즌 7호 골을 터뜨렸다.

기성용은 5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의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헐시티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18분 팀의 선제골을 기록했다. 팀 동료인 존조 셸비의 중거리 슛을 상대 골키퍼 알란 맥그리거가 쳐내자 달려들던 기성용이 왼발로 밀어 넣어 1-0을 만들었다.

지난달 5일 토트넘을 상대로 시즌 6호 골을 기록한 이후 약 1개월 만에 골맛을 본 기성용은 자신이 갖고 있던 한국인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7골로 늘렸다.

또 아시아 선수를 통틀어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 골 기록을 세웠다. 종전 이 부문 기록은 이번 시즌 기성용과 2012-2013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뛴 가가와 신지(일본)의 6골이었다.

스완지시티는 바페팀비 고미스가 두 골을 더해 헐시티를 3-1로 꺾었다. 13승7무11패가 된 스완지시티는 승점 46으로 20개 구단 가운데 8위 자리를 유지했다. 기성용은 풀타임 활약했다.

경기 후 축구 통계사이트인 후스코어드닷컴은 기성용에게 팀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인 7.66점을 줬다. 2골을 넣은 고미스가 8.80점을 얻었고, 길피 시구르드손이 8.16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기성용의 패스 성공률은 92.3%로 팀내 3위를 기록했고, 볼터치는 86차례로 팀내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퀸스파크 레인저스의 윤석영(25)은 웨스트브롬과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와 후반 37분 교체될 때까지 뛰면서 팀의 4-1 승리를 거들었다. 최근 5연패 사슬을 끊은 퀸스파크 레인저스는 승점 25가 되면서 18위로 순위가 한 계단 올랐다. /유선준기자

스완지시티 기성용이 5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헐시티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18분 팀의 선제골을 기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LPGA 김세영, 메이저 우승 눈앞

ANA 인스퍼레이션 3R 2위와 3타차 선두

올해 미국 무대에 도전장을 던진 김세영(22·미래에셋)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데뷔 시즌에 메이저대회 왕관을 노린다.

김세영은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란초 미라지의 미션 힐스 컨트리클럽 다이나 쇼어 토너먼트 코스(파72·6769야드)에서 열린 ANA 인스퍼레이션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타를 줄였다.

중간 합계 10언더파 206타를 친 김세영은 스테이시 루이스(7언더파 209타)에 3타 앞서며 우승을 향해 질주했다. 호쾌한 장타가 주무기인 김세영은 침착한 경기 운영으로 선두 자리를 지키며 데뷔 해에 메이저대회 우승까지 눈앞에 뒀다. 이미 지난 2월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신인상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한편 제니 신(23·한화)이 5언더파 211타로 공동 6위다. 이날 2타를 줄인 이미향(22·볼빅)이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과 함께 공동 9위(4언더파 212타)에 올랐다. 세계랭킹 2위 박인비(27·KB금융그룹)는 3언더파 213타로 공동 14위에 올라 선두와의 격차가 7타로 벌어졌다. /김민준기자

'어깨 재활' 류현진 개막전 7일 훈련 재개

왼 어깨 통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오른 채 메이저리그 개막을 맞이하는 류현진(28·LA 다저스·사진)이 7일(한국시간) 투구훈련을 재개한다. 7일은 다저스가 올 시즌 메이저리그 정규시즌 첫 경기를 치르는 날이다.

미국 CBS스포츠는 5일 "류현진이 7일 어깨 재활 프로그램의 일정에 따라 투구 훈련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캐치볼 중 어깨 통증을 느낀 후 2주 만에 공을 잡는 류현진은 7일 훈련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을 세운다.

통증 없이 첫 투구 훈련을 마치면 거리를 늘리고 속도를 높여가며 캐치볼을 하고 하프피칭과 불펜피칭을 통해 실전 등판 가능성을 시험한다. /김민준기자

손연재 시즌 2번째 월드컵 개인종합 4위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사진)가 시즌 두 번째 월드컵에서 개인종합 4위에 올랐다.

손연재는 5일(한국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 대회 개인종합 종목별 예선 이튿째 경기에서 곤봉 18.150점(5위), 리본 17.950점(5위)을 받았다. 전날 후프 17.900점(3위), 볼 18.050점(5위)을 더해 손연재는 4종목 합계 72.050점으로 개인종합 4위를 기록했다.

세계선수권 우승자 야나 쿠드랍체바가 총점 75.950점으로 마르가리타 마문(73.800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하며 개인종합 1~2위는 리듬체조의 '절대 강자' 러시아가 차지했다. 벨라루스 출신의 멜리티나 스타니우타가 72.450점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민준기자

지자체, 환경보조금 310억 방만 집행

TMS 조작·폐수 무단방류 등 적발도

지난해 사람자치단체가 영등하게 쓰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환경분야 보조금이 3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과 대전, 경북, 충남 등 4개 시·도만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에서 전국적으로 누수되는 환경분야 보조금의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할 지자체들이 오히려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하거나 폐수를 우회관로로 무단방류하는 등 오염 행위에 나서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 보조금 따는데만 혈안, 따놓고는 방만 집행

대전시의 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해 오염도(COD)가 심한 폐수를 따로 처리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는 1.7km의 이송관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14억7600만원의 국가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만들어놓은 관로는 사용도 못한 채 자금도 방치돼 있다. 감사에 나섰던 환경부 환경감시팀 관계자는 "공단 측이 해당 업체와 협조도 없이 보조금부터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정작 폐수 배출업체에는 관로를 연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 공단에서는 폐수처리장 처리수의 오염도가 높게 나와 초과 부과금을 내야 되는 지경이 되자,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조작한 사실도 적발됐다. TMS의 전의값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가 수질기준 이내인 것처럼 측정되게 한 것이다.

공주시와 포항시는 원인자 부담금을 걷어놓고도 이를 사업비에 포함시키지 않은채 국가 보조금을 부풀려 신청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49억6000만원과 64억1100만원을 환수조치 당했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환경분야 국가보조금을 부당·방만하게 집행한 금액은 지난해 모두 313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12건으로 상하수도 분야 8건, 폐기물 분야 3건, 자연환경분야 1건 등이다.

◆ 출입기록 남을까봐 창문으로 들어가 기계 조작

이와 별도로 지자체가 앞장서서 오염 행위를 해온 사실도 잇따라 적발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곳은 부산환경공단으로 3개 사업소에서 하수처리수가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TMS의 기울기값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영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수시로 조작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출입문을 열고 닫을때 기록이 남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이 아닌 창문으로 들어가 TMS를 조작했다고 환경감시팀은 밝혔다.

또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서 2013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9월 23일까지 미처리하수 106만5000톤을 우회수로로 무단방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와 부여군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아스콘 공장을 허가해줬다가 적발됐다. 이들 지자체는 오염물질 발생량 산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적발된 12개 보조사업에 대해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사안이 중대한 3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 TMS조작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단속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유선준기자 rsunjun@metroseoul.co.kr

활짝 핀 벚꽃보다 예쁘게 5일 축제가 한창인 '2015 강릉 경포 벚꽃축제'에서 관광객들이 활짝 핀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봄날의 추억을 만끽하고 있다. 경포 벚꽃축제는 10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체납자' 발견 즉시 번호판 뗀다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과태료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현장에서 바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상·하반기 석 달간 운영되는 체납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에 관내 체납 과태료가 100억원이 넘는 경찰서는 징수전담 경찰관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동안 경찰서별로 과태료 담당 경찰이 맡았던 과태료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 업무를 전체 교통 외근 경찰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과태료 담당 경찰이 교통 과태료 전반의 업무를 처리하고 경찰서별로 1명뿐이 없어 적극적으로 번호판 영치 업무를 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에게도 영치업무를 부과, 교통경찰이 외근 활동 중 차적 조회 등을 통해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체납된 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번호판을 떼도록 했다.

단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 바로 번호판을 떼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통조사경찰이나 지구대·파출소 경찰이 근무 중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교통 외근 경찰에게 알려 번호판 영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달부터 6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체납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지방경찰청은 현장징수팀 2개 팀, 일선 경찰서는 1개 팀을 각각 꾸려 체납 차량을 적발해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방경찰청이,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경찰서가 추적 징수한다. /박현영기자 hmpark@

탑골공원 90년 된 일제 잔재 이관 추진

90년 전 일제가 만든 서울 종학천 복정교 교명주(다리 이름을 새긴 기둥)가 항일운동의 중심지인 탑골공원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다.

서울역사박물관은 1926년 일제가 만든 복정교 교명주를 이관해 박물관에서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교명주는 서울시가 1986년 탑골공원 내에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 흙을 파는 정비공사를 하던 중 원각사비 앞 지하 1m 지점에서 발견된 것이다.

높이 112cm, 너비 25.9cm인 교명주의 정면에는 한자로 '복정교(福井橋)'라고 음각돼 있다.

현재 이 교명주는 다른 유구들과 함께 탑골공원 공원녹지과에서 공원 서편에 보관해 관리하고 있다.

복정교는 본래 조선 태종 때 삼청동에서 청계천으로 흐르는 중학천에 만든 다리인 '혜정교'를 일제가 1926년 개축하면서 새로 지은 이름이다.

조선시대 때는 이 다리 위에서 국법을 어긴 사람을 죽여 공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역사박물관 측은 "일제 강점기에 개축된 다리의 교명주를 1919년 3.1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이자 항일운동의 본거지인 탑골공원 내에 놔두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비판이 계속돼 계기를 얻었다"며 이관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조선시대부터 복원 이후 현재까지 청계천의 역사적 가치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청계천삼설전이 재개관하면 전시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야외 전시장에 전시해 영구보존한다.

박물관은 이를 위해 관할 구청인 종로구청과 이관 절차, 시기 등을 협의 중이며 문화재청에 문화재보호구역 내 이전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를 내놓은 상태다. /박준용기자

'억대 연구비' 가로챈 서울대 교수 구속기소

국가 연구개발에 쓰일 인건비와 물품대금 등을 가로챈 전직 교수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경기)는 국가에서 연구비로 지급된 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 부교수 김모(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석·박사 학생 14명 명의로 인건비 통장을 만들어 정부에서 입금되는 연구비를 직접 관리했다. 김씨는 이 가운데 실제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도 연구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 학생 통장으로 입금되는 연구비를 가로챘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연구물품을 산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해 업체에 입금된 연구재료비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에 연구개발비를 청구했다. /이홍원기자 hong@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 버블쇼 5일 서울 세종대로 보행전용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버블쇼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은 깨어난다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100%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